
한일관계사학회

제211회 월례발표회

일시 : 2024년 3월 9일(토) 오후 2~6시

장소 : 한성백제박물관 B2 세미나실

차 례

사회 : 이훈(한림대)

제1발표	
근세 근대 이행기의 한일관계와 러시아	발표 : 池内敏(나고야대) 토론 : 현명철(서울대)
제2발표	
초량왜관 선창지 유적 발굴성과에 대하여	발표 : 片山まび(동경예술대) 토론 : 정성일(광주여대)
제3발표	
임진전쟁 전후 조선의 關白과 日本國王인식	발표 : 임현채(서강대) 토론 : 조인희(한국국학진흥원)

제1발표

근세 근대 이행기의 한일관계와 러시아

발표 : 池内敏(나고야대)

토론 : 현명철(서울대)

【제1주제】

한일관계사학회 제211회 월례발표회(2024.03.09)

근세 근대 이행기의 한일관계와 러시아

이케우치 사토시(池内敏)

시작하며

조선 후기의 조일 관계를 대표하는 조선통신사도 결과적으로는 분카(文化) 8년(1811) 쓰시마에서의 교류가 마지막이 되었으며, 그 후 여러 차례 파견을 검토했지만 모두 실현되지 않았다. 19세기에는 서구 세력이 일본에 접근하는 빈도가 늘어났고, 일본은 이에 대한 대처에 내몰리는 가운데 결국 개국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동향은 일본의 아시아 여러 나라들과의 외교관계가 뒷전으로 물러서게 된 것과 궤를 함께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개국은 서구 제국과의 개국으로 이해되었고, 구미를 기준으로 하는 근대사회로의 참여가 이후 일본이 역사를 걸어 나가는 데에 있어 평가의 축이 되었다. 아시아에서도 일찍부터 구미 기준의 근대화를 진행한 일본은, 한때 자신이 구미에 강요받았던 방식으로 주변 나라들과 대치하였고, 마치 구미 제국이 일본에 취했던 것과 같은 자세로 청나라와 조선에 개국을 강요했던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 이러한 이해는 이것대로 하나의 설명 방법으로 유효할 수 있으며, 아마도 통설적인 이해로 정착된 역사를 바라보는 시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구미에 강요받은 개국을, 그 강요받은 것과 유사한 방법으로 주변 나라들에 개국을 강요했다는 도식은 매우 관념적이면서도 감정적이며, 조금 더 신중한 역사 서술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문제 제기도 다른 한편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쇄국에서 개국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변동을 어떻게 재구성하고 재고할 것인가라는 과제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본고는 이러한 과제에 접근하기 위한 작은 발걸음에 지나지 않으며, 다루는 소재 또한 앞서 언급한 역사 변화의 규모와 비교하면 매우 사소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주된 소재는 울릉도이다. 울릉도는 에도시대 일본에서는 다케시마(竹島) 혹은 이소타케시마(磯竹島)로 불렸으며, 돗토리번(鳥取藩)령 요나고(米子)의 조닌(町人) 계층인 오야(大谷)와 무라카와(村川) 두 집안이 막부(幕府)로부터 도해 면허를 받아 어업에 종사했으나, 겐로쿠(元禄) 9년(1696) 도해 금지령이 내려짐에 따라 도항이 단절되었다. 막말유신기(幕末維新期)에는 일본에서 울릉도를 마쓰시마(松島)로 부르는 일이 많아졌으며, 메이지(明治) 초년에는 여러 명의 일본인들이 마쓰시마 개척원(松島開拓願)을 제출했다. 울릉도는 15세기 전반 조선왕조 정부에 의해 공도화가 진행되었으나, 1882년에는 울릉도 개척령이 내려짐에 따라 조선령으로서의 실태를 갖추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에 따라 일본 정부는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 금지를 명했으나, 그 한편으로 불법 도항은 끊이지 않았다.

울릉도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영토 문제에 종속시켜 이야기해 온 것이 많았다. 본고는 영토 문제로부터 다소 거리를 두면서 울릉도를 둘러싼 막말유신기의 상황에 대해 논하고, 이를 통해 조일 관계에 있어서 근세에서 근대로의 이행이 이루어지는 양상을 재검토하고자 한다.2

1. 러시아의 남하(南下)란 무엇인가?

쇄국 상태였던 일본이 개국으로 향한 발자취는 18세기 말 러시아에 의한 통상 요구로부터 시작된다. 간세이(寛政) 5년(1793) 락스만의 네무로(根室) 내항, 분카 2년(1805) 레자노프의 나가사키 내항이다. 다음의 [사료 1]은 레자노프에게 건넨 언도서(申渡書)로, 일본 상선의 해

외 도항 금지와 외국 상선의 일본 도래제한이 ㉔에 서술되었으며, 현재 상황으로는 대외관계를 맺은 나라들이 중국(청), 조선, 류큐, 네덜란드로 한정되어 있음이 ㉕에 서술되었다. 그리고 ㉖에는 러시아란 지금까지 대외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는 점과, 러시아가 일본에 통상을 요구하려는 것은 알겠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은 논의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 서술되어 있다. 이는 인접 국가와의 우호 관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이 아닌, 러시아란(인접 국가이기는 하지만)풍토와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새롭게 대외관계를 맺을 수 없다고 서술하고 있다(㉗). 호시(互市) 즉 양국 사이의 무역은 유의미한 듯이 보이지만, ‘해외의 무가치한 물건(海外無価の物)’과 ‘국내의 유용한 물건(我国有用の貨)’을 교환하는 것과 같으며, 일본 입장에서 본다면 결코 좋은 것이 아니다(㉘). 이러한 호시무역을 행하지 않고 단순히 ‘信’을 통하는 정도로만 하고, 새롭게 ‘好(よしみ, 요시미)’를 맺는 것은 일본이 금하고 있는 바를 무시하는 것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㉙). 따라서 두 번 다시 오지 않도록 전달한 것이다.

[사료 1]1

申渡

㉔我国昔より海外に通問する諸国不少といへとも、事便宜にあらさるか故に、嚴禁を設く、我国の商戸外国に往事をとゝめ、外国の賈船もまたもやすく我国に来る事を許さず、強て来る海舶ありといへとも、固く退けていれず、㉕唯唐山、朝鮮、琉球、紅毛の往来することは、互市の利を必とするにあらず、来ることの久しき素より其謂れあるを以なり、㉖其国の如きは、昔よりいまた曾て信を通せし事なし、計らざるに、前年我国漂流の人をいさなひて、松前に来りて通商を乞ふ、今又長崎に到り好みを通し、交易を開かん由を計る、既に其事再におよんで、深く我国に望む所あるも又切なるをしれり、然りといへとも望み乞所の通信商の事は、重く爰に議すへからざるもの也、我国海外の諸国と通問せざること既に久し、㉗隣誼を外国に修むる事をしらするにあらず、其風土異にして、事情におけるもまた懽心を結ぶにたらず、徒に行李を煩らはしむる故を以て絶て通せず、是我国歴世封疆を守るの常法なり、争か其国一价の故を以て、朝廷歴世の法を変すへけんや、礼は往来を尚ふ、今其国之礼物を請て答へすんは、礼を知らざるの国ならん、答へんとすれは、海外万里何れの国か然るへからさらむ、容ざるの勝れるにしかず、㉘互市の如きは、其国の有所を以て我無所に更へ、各其理あるに似たりといへとも、通して是れを論すれは、海外無価の物を得て、我国有用の貨を失はん、要するに国計の善なるものにあらず、況やまた輕剽の民奸猾の商物を競ひ、価を争ひ唯利是を謀て、やゝもすれは風を壊り俗を乱る、我が民を養ふに害ありて、深くとらざる所なり、㉙互市交易の事なくして、唯信を通し新に好を結ぶ、素よりまた我国の禁ゆるかせになしかたし、爰を以て通することをせず、朝廷の意かくの如し、再来る事を費すことなかれ

마침내 반 세기 후, 미국에서 페리가 일본을 찾아왔을 때, 페리는 막부가 레자노프에게 건넸던 언도서([사료 1])를 미리 입수하여 참고로 삼고 있던 듯하며, 페리의 내항기록에 실린3 [사료 1] 중 밑줄 ㉔부분은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 있다.

[사료 2]2

It is long since we discontinued all relations with foreigners generally. Although we desire to live in peace with all neighboring States, the difference between them and

us, in manners and character, forbids centuries treaties of aliance. Your voyages and your labors are, therefore useless.”

지금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료 2]의 물결선 부분인데, 이는 [사료 1]의 밑줄 ㉔에 있는 ‘隣誼を外国に修むる事をしらざるにあらず(隣誼를 외국과 맺는 것을 모르는 것이 아니다)’에 해당한다. ‘隣誼’의 ‘隣’은 문자대로 ‘이웃한다’라는 뜻(neighboring)으로 이해되고 있다. 페리 또한 에도 막부와 교섭에서 미합중국이 태평양을 사이에 둔 이웃 나라임을 강조했지만, 러시아의 등장은 이보다 훨씬 근접한, 문자 그대로 ‘이웃 나라’의 새로운 출현이었다. 그리고 다음의 사료는 여기에 적혀 있는 사실(史實)에 대한 방증을 찾을 수 없지만, 19세기 초의 쓰시마번(對馬藩)을 둘러싼 국제 환경의 양상을 시사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흥미로운 것이다.

[사료 3]3

○享和三癸亥年 宗対馬守御達

一此度莫斯科未亜

モスコビア

大王朝鮮國を相隨可申者、度々軍使遣シ候得共、朝鮮王屬シ不申候付、從莫斯科未亜大軍を發シ、大將其達、副將親蘭乾シンランコン江三百万程之軍勢を差添江、朝鮮國江差渡リ

候、大軍故朝鮮王難防キ候ニ付、大清國江加勢を乞候由、此節感 鏡カンキヤヲ・江原ユウケン之兩道を攻破リ、國王城を水攻ニ可致込、八方江土手を築キ大河を碩入候由、未日本江逃渡リ可申哉と對州其外近辺騒動以之外ニ御座候、猶亦莫斯科未亜惣大將者ハユロと申者之由、越谷エツコクと申所江致出張、大城を築キ、其所江十万余之人数二三里ニ滿テ、数万人後詰と相見候、其勢ひ盛ニ御座候、且蝦夷之通船も有之由風聞御座候、猶亦追々遣見之者共訴出候趣可申上候、以上

享和三年亥八月 宗対馬守

松平越中守様

발신인 소 쓰시마노카미(宗対馬守)는 쓰시마번주 소 요시카쓰(宗義功), 수신인 마쓰다이라 옛추노카미(松平越中守)는 마쓰다이라 사다노부(松平定信)를 가리킨다. 사다노부는 간세이 5년(1793)에 로주(老中)에서 물러났지만, 그 후에도 계속해서 막부정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었다. 위의 문서가 제출된 교와(享和) 3년(1803) 8월은 간세이 5년(1793) 락스만의 네무로 내항과 분카 2년(1805) 레자노프의 나가사키 내항 사이에 끼어 있는 시기에 해당한다. ‘莫斯科未亜(모스코비아)’는 이 문서가 작성되었을 시기에는 러시아라는 뜻으로 사용되고 있었을 것이다.

4 그리고 위의 사료에는 러시아가 조선을 굴복시키기 위해 대군을 파견했고, 조선은 청나라에 원군을 요청했다는 것이 서술되어 있다. 러시아군은 한반도 북부(함경도 및 강원도)를 공략하고, 조선 국왕이 기거하는 성에 수공을 시도했다. 이때문에 조선 국왕이 일본으로 도망쳐 오지 않겠냐고 쓰시마와 그 주변에서 소동이 일어나고 있다고 서술하고 있기도 하다. 러시아군은 후방에도 십만여의 지원군을 대기시키고 있다는 것과 에조치(蝦夷地, 홋카이도)

로 배를 보낼 수도 있다는 것이 품문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史實)을 뒷받침하는 사실(事實)은 발견할 수 없으므로, 위에 적힌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는 없다. 가령 누군가의 창작이라고 할 경우, 덴포(天保) 14년(1843) 내지는 분큐(文久) 3년(1863) 이전에는 이러한 창작이 이루어졌고, 에도 주변에서는 유포되고 있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5 그리고 이 창작자는 다음과 같은 지식을 전제로 하여 이러한

창작을 한 것이 틀림없다. 즉, 19세기 초에는 조선 정보가 쓰시마번의 손을 통해 막부 중앙에 전달되었을 뿐만 아니라, 조선을 통해 러시아 정보 또한 마찬가지로 쓰시마번의 손을 통해 막부 중앙에 전달되었다는 것이다. 19세기의 쓰시마번은 단순한 조선과 일본의 중개자일 뿐만 아니라, 러시아 정보의 제공자로서도 막부의 기대를 받고 있던 것이다.

[사료 4]6

山崎初右衛門

右者、先般大森繁右衛門出府被仰付候御用至而重御場ニ而、御用中と申御国体彼此不易為何御尋出可申哉も可量様も無之儀、然者㉔朝鮮絵図等若御覽之儀をも可被仰出も難測、依之右絵図繁右衛門持越候処、御国之御地形ニ付而ハ外国方角近キ御国藩屏之御地位之訳も不安様ニ相聞可申処、㉕初右衛門儀兼而心掛宜、地 求

(球)

分度之図等をも委令吟味居候を繁右衛門へ

指教候を、繁右衛門儀右初右衛門ち習ひ候而凡之一通り相分れ、則㉖四半之図初右衛門へ申達相調候を持越居候処、果㉗朝鮮絵図之儀御尋被成、則夫々被差上候ニ付而も、右地 求

(球)

四

半之図を以方角凡之里数をも御覽ニ入、御国之儀外国近キ大切之御場と申所不求して申上候ニ至、是偏ニ初右衛門心掛宜格別之御用ニ立候段、御国内第一之御道具を被得候事ニ而、格別之儀候、仍而御称美被仰付候、此旨可被申渡候、以上

〔寛政六年〕五月十四日 年寄中

与頭衆中

쓰시마 역지통신을 준비하고 있었던 간세이 6년(1794), 쓰시마번의 가로(家老) 오모리 시게에몬(大森繁右衛門)이 에도로 가서 막부 각료들에게 사정을 설명하게 되었다. 이때 자칫하면 조선지도(朝鮮絵図)를 보여달라는 요청이 있을 수도 있었다(㉔). 번사(藩士) 야마자키 하쓰에몬(山崎初右衛門)은 이전부터 ‘地球分度之図’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었기에(㉕), 오모리 시게에몬은 하쓰에몬의 조력을 얻어 ‘四半之図’를 가지고 에도로 향했다(㉖). 에도에서는 예상대로 막부의 각료들로부터 조선지도에 대한 질문이 있었으며, 시게에몬은 조선지도 등을 제시하고, 이와 동시에 ‘地球四半之図’를 이용해 쓰시마에서 조선으로 향하는 방위와 거리 등에 대해서도 보여주었다. 그리하여 ‘쓰시마는 외국과 가까운 중요한 위치에 있다(御国之儀外国近キ大切之御場)’는 것을 따로 역설할 필요도 없이 (그 지도를 보여줌으로써)자연히 막부 각료들을 납득시켰다(㉗)고 하는 것이다.5

여기서 말하는 ‘地球分度之図’와 ‘地球四半之図’란, 아마 두 개의 커다란 원으로 지구 전체

를 그린 세계지도를 바탕으로, 일본과 한반도 및 근린 대륙을 추출하여 그린 부분지도를 의미하는 것일 것이다. 조일 관계사에서 차지하는 쓰시마번의 중요성에 대해 막부 각료를 이해시키기 위해, 일본과 조선 양자를 포함한 대륙 및 해양을 지리적 범위로 보여주면서 제시했다. 이러한 필요성이 19세기의 이 시기에는 요구되고 있던 것이다. 그리고 제시된 ‘地球四半之図’에는 청나라와 함께 러시아의 영역도 포함되어 있었을 것이 틀림없다.

위로부터 조금 시간이 흐른 뒤, 마찬가지로 쓰시마 역지통신을 준비하고 있었던 분카 4년(1807), 에도 막부의 유관(儒官) 하야시 줯사이(林述齋)는 쓰시마번 가로에게 조선과 러시아 사이의 교역 유무와 조선 북서부(의주)에서의 교역 실태에 대해 문의했다고 한다(松本智也 2022, pp.472-473).

러시아의 남하는, 에도 막부에 있어서는 서구 신흥국이 먼 곳에서 찾아오는 것이었다기보다, 인접한 동아시아 세계로 새로운 이민족 국가가 출현한 것으로도 느껴지지 않았을까? 그만큼 위협은 가깝게 느껴진 것이다. 앞서 인용한 [자료 1]의 물결선에는 ‘예는 왕래를 따른다. 지금 그 나라의 예물을 받고 답하지 않는다면, 예를 모르는 나라일 것이다(禮は往來を尚ふ、今其国之礼物を請て答へずんは、礼を知らざるの国ならん)’고 말하는 부분이 있다. 레자노프의 요구에 대한 승낙 여부를 ‘예(禮)’의 관점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부분이다. ‘예는 왕래를 숭상한다’에서 말하는 ‘왕래’를 반드시 사절의 왕래에 한정시킬 필요는 없을 것이고, 서장과 증답품의 왕복을 뜻하는 것일 것이다. 예를 들어 동래부사 및 부산첨사와 쓰시마번주 사이에서 서계를 교환할 때 항상 이와 함께 이루어지는 예물 교환을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다. 레자노프의 통상 요구에 대해, 이를 기존 동아시아 국제질서에 존재해 온 교류의 선례7에 비추어 승낙 여부를 판단했다는 것이다. 여기서 조선과 일본의 중개자 역할을 수행해 온 쓰시마번은, 동아시아 세계에 갑자기 나타난 신흥국 러시아에 관한 정보수집까지 중요한 임무로 맡게 된 것이다.

2. 막말유신기 일본의 울릉도 인식과 러시아

러시아 사절 푸타틴이 나가사키에 내항한 것은 가에이(嘉永) 6년(1853)이었다. 러시아 사절 응접 담당(露使応接掛)으로 임명된 막신(幕臣) 쓰쓰이 마사노리(筒井政憲)는, 쿠릴 열도(지시마 열도[千島列島])의 귀속 문제를 논하는 과정에서 다케시마(울릉도)의 사례에 대해서도 검토했다(麓慎一 2022, pp.77-78). 그 과정에서 쓰쓰이는 ‘원래 ‘다케시마(울릉도)’가 일본령임은 틀림없다’, ‘명백히 일본 영토였던 ‘다케시마(울릉도)’를 조선에 주었던 것을 생각해 본다면, 일본 영토라는 명확한 근거를 보일 수 없는 우루프섬을 러시아에 주어도 문제없다’고 주장했다고 한다(麓慎一 2022, p.78). 안세이(安政) 원년(1854)에도 같은 논의가 막신들 사이에 존재했다고 한다(麓慎一 2022, pp.78-79).

본고의 필자가 이미 논한 바이지만(池内敏 2016, pp.73-74), 겐로쿠 9년(1696) 1월 9일, 막부의 로주 아베 마사타케(阿部正武)는 쓰시마번 가로 히라타 나오테몬(平田直右衛門)을 불러서 히라타에게 직접 다음과 같이 말했다.6

[자료 5]

竹島はもともと明らかに日本領だというわけでもない。…鳥取藩に尋ねたところ、竹島は因幡・伯耆に属する島というわけでもない。もともと朝鮮領であったものを日本領としたわけでもなく、日本人が住んでいるわけでもない。竹島までの距離は、伯耆から一六〇里程な

のに対して朝鮮からは四〇里ほどである。とすれば、竹島とは「朝鮮国の鬱陵島」のことであろうか。こうしたことからすると、日本人が住んでいるか日本のものにした島であれば、今さら返すというわけにもいかないだろうが、そうした証拠も無いのだから、今回の一件は、こちらから敢えて問題としないほうが良いのではないか。

鮑取りに行くだけの無益な島ごときのことで、日本と朝鮮の両国関係がもつれてしまい、ねじれた関係が解けずに凝り固まって、これまで続けてきた友好関係が断絶するのも良くなかろう。本来は筋の通らないことを御威光や武威でもって相手をねじ伏せるようなやり方でこちらの意見を通そうというのも要らないことである。

다케시마(울릉도)의 귀속을 둘러싸고 조일 양국이 다투던 겐로쿠다케시마잇켄(元禄竹島一件, 울릉도쟁계)은 이러한 막부 로주의 판단에 따라 다케시마(울릉도)가 조선령임을 확인한 것이다. 아베는 쓰시마번으로부터 교섭 과정을 청취하고, 그 과정에서 제시된 몇몇 증거 서류들을 점검했으며, 돗토리번 에도번저(江戸藩邸)에도 문의하여 답변을 요청했다. 이에 비해 막부 말기의 막부 대외 정책을 짚어지고 있던 막신들은, 겐로쿠 시기의 막부 의사결정과정에서 사용된 논거 서류들을 검토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명백히 일본 영토였던 ‘다케시마(울릉도)’를 조선에 주었’다고 하는 것은 19세기 일본의 항간에서 계속 반복되던 속설이다.

그런데, 보신 전쟁(戊辰戦争)의 결과가 보이기 시작한 메이지 2년(1869) 5월, 메이지 정부는 앞으로의 조선 외교를 중앙정부 주도하에 진행할 것을 쓰시마번에 전달하고, 중앙정부가 직접 조선 정세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조사단을 파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조사단의 구성이 구체화한 것은 같은 해 9월 말 이후였으며, 같은 해 11월 외무준대록(外務准大録) 사다하쿠보(佐田白茅), 외무소록(外務少録) 모리야마 시게루(森山茂), 외무준소록(外務准少録) 사이토 사카에(齋藤栄) 세 명을 조사단원으로 임명했다. 11월 상순경, 이 조사단에 부여된 조사사항은 「朝鮮へ被差渡候者心得方御達ノ案」으로 11항목에 걸쳐 제시되었다(沈箕載1997). 조사단은 같은 해 12월 6일 도쿄에서 출발하고, 나가사키와 쓰시마 체류를 거쳐 메이지 3년(1870) 2월 22일 부산 왜관에 도착했다. 조사단은 3월 하순에는 나가사키로 돌아왔으며, 사다, 모리야마, 사이토의 연명(連名)으로 조사보고서 「朝鮮国交際始末内探書」를 4월 외무성에 제출했다. 그 내담서의 항목 부분만 발췌하여 아래에 게시해 두겠다.

[자료 6]8

- 一(1) 慶長元和以来朝鮮国ヨリ信使差越、藩属ノ禮ヲ執来候元由
- 一(2) 対州ヨリ朝鮮へ差遣シ候使者ノ禮典、朝鮮ヨリ対州へ差渡シ候使者ノ禮典
- 一(3) 朝鮮国ヨリ勘合印ヲ受候由、右ハ同国制度ニ取入貢ヲ受候取扱ナル哉
- 一(4) 朝鮮ノ国体、臣禮ヲ受ル国ニ取り、北京ノ正朔ヲ仰クト云ヘトモ、国政ニ至テハ自裁独断⁷
ノ権力アル哉
- 一(5) 皇使被差遣候節、御軍艦首府近海へ被相廻候ニ付良港有無
- 一(6) 朝鮮国ノ儀、魯西亜ノ毒吻ニ心酔シ、陰ニ保護依頼スル風評、且境略論
- 一(7) 朝鮮国海陸軍武備ノ虚实、器械ノ精粗
- 一(8) 内政ノ治否、草梁記聞ノ如クナル哉
- 一(9) 貿易取開ニ付テハ物品ノ交換、物価ノ低昂、及ヒ貨幣ノ善惡

一 (10) 歳遣船向來存止

一 (11) 対州ハ兩國ノ間ニ价立スル孤島ニテ交際ノ入費并漂民彼我引渡方等、一藩尋常政費外ノ入

費

一 (12) 朝鮮ハ草梁項ノ外其内地ハ日本人ノ旅行難相成哉

一 (13) 竹島松島朝鮮附属ニ相成候始末

위와 같이 「朝鮮国交際始末内探書(이하 「内探書」)」는 조사 결과를 13항목으로 나누어 기재하고 있으며, 이들 중 제1~12항의 조사 결과는 조사단에게 미리 전달된 「朝鮮ハ被差渡候者心得方御達ノ案(이하 「御達ノ案」)」의 11항목에 대응하여 작성되었다. 「御達ノ案」 제1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가 「内探書」 제1 및 제2 항목 두 개로 나뉘어 작성되었기 때문에 항목 수에 차이는 있지만, 이 점을 제외하면 각 항목의 기재 순서는 「御達ノ案」과 「内探書」가 동일하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위의 「内探書」에 대해 본고에서 주의하고 싶은 점은 다음 두 가지이다.

첫 번째는 「御達ノ案」에는 없었던 조사가 「内探書」 제13항목에 기재된 점이고, 두 번째는 「御達ノ案」 제5항목(「内探書」 제6항목)으로 기재된 ‘조선에 대한 러시아의 영향 유무’이다.

우선 전자에 대해 말하자면, 이미 서술한 대로 이 조사단은 중앙정부가 직접 조선 정세의 현황을 확인하기 위해 파견된 것이고, 「御達ノ案」에는 중앙정부에서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항목이 열거되었다. 이들 열거된 항목 가운데 ‘다케시마(竹島)와 마쓰시마(松島)’에 대해서는 항목으로 거론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内探書」 제13항은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자료 7]

一 (13) 竹島松島朝鮮附属ニ相成候始末

此儀ハ、松島ハ竹島ノ隣島ニテ、松島ノ儀ニ付是迄掲載セシ書留モ無之、竹島ノ儀ニ付テハ、元禄度後ハ暫クノ間朝鮮ヨリ居留ノ為差遣シ置候処、当時ハ以前ノ如ク無人ト相成、竹木又ハ竹ヨリ太キ葭ヲ産シ、人參等自然ニ生シ、其餘漁産モ相應ニ有之趣相聞ヘ候事、위 사료에 보이는 다케시마(竹島)와 마쓰시마(松島)에 대한 서술에 따르면, 여기서 말하는8 다케시마와 마쓰시마는 에도시대의 호칭을 따르고 있으며, 다케시마는 현재의 울릉도, 마쓰시마는 마찬가지로 현재의 독도를 가리키고 있다. 그리고 마쓰시마에 관해서는 특별한 기록(‘書留’)이 없다는 점, 다케시마에 관해서는 ‘元禄度’ 즉 겐로쿠다케시마잇켄(울릉도쟁계) 후에는 조선인이 거주하기도 했으나, 현재는 무인 상태로 돌아갔다는 점이 서술되어 있다. 이들 울릉도에 대한 설명은 그 자연 상황에 대한 설명(대죽, 인삼, 어획)이 모두 사실에 근거한 객관적인 것이며, 앞서 언급한 막신 쓰쓰이 마사노리에 의한 자의적인 설명과는 꽤 다르다. 이것은 [자료 7]의 서술이 사다 조사단의 청취조사 대상이었던 부산 왜관의 구 쓰시마번 번사들로부터 얻은 정보이기 때문일 것이다. 정보원이 실제로 겐로쿠다케시마잇켄(울릉도쟁계)을 경험하고, 관련된 사료군을 주변에 남겨두었던 쓰시마번의 관계자였기 때문에 울릉도의 내력에 관한 설명도 객관적이었던 것이다.

9

다음으로 「御達ノ案」 제5항목(「内探書」 제6항목)에 대해서이다. 다음 [자료 8]의 A와 B는 각각 「御達ノ案」 제5항목과 「内探書」 제6항목의 전문이다.

[사료 8]10

A 朝鮮国ノ儀、既ニ魯西亜ノ毒吻ニ心酔シ、陰ニ其保護ニ依頼スルトノ風評アリ、真ニ然ヤ否、且魯西亜ト既ニ境壤ヲ接スルニ至レリト、然ラハ定テ壤界ノ論等アルヘシ、右事實探索ノ事、

B 朝鮮国ノ儀、既ニ魯西亜ノ毒吻ニ心酔シ、陰ニ其保護ニ依頼スルトノ風評、且境略論此儀、草梁ノ出入等ヲモ聞採リ、訓導面会ノ折モ夫トナク事情相尋候ヘトモ、魯西亜ニ依頼スル事情更ニ不相聞、尤黒龍江ヲ隔北ノ方、方今魯西亜人士宇ヲ開墾スル風聞アレト、朝鮮境鴨緑江迄ハ懸隔ノ場所、境壤未接哉ニ有之、併永ク境壤ヲ安シ候儀ニハ難相成トノ風聞ニ有之候事、

조선이 러시아의 보호를 받는 등 친밀한 관계에 있는지 여부, 조선과 러시아가 국경을 접하는 상화에 있는지 여부, 이 두 가지를 지시한 조사 내용이었다(A). 이에 비해 사다 조사단은 왜관에 출입하는 조선인과 동래부 왜학역관(훈도)을 통해 정보 입수에 힘쓰고, 첫 번째에 대해서는 현시점의 조선은 러시아의 보호를 받는 등의 관계에 없다고 적었다. 그리고 두 번째에 대해서는 흑룡강 북쪽에서 러시아인이 개간을 진행하고 있지만 조선과 국경을 접한 것은 아니며, 다만 언제까지나 국경을 접하지 않은 채로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적었다(B). 이렇게 조선 너머의 러시아라는 존재를 의식하는, 일본의 러시아에 대한 관심 양상은 앞서 서술한 19세기 초 막부 중앙이 기울였던 관심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막부에서 유신 정부로 이어지는 일본의 중앙정권에 있어서 러시아라는 존재는 계속적으로 신경이 쓰이는 존재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관심 양상은 「御達ノ案」으로 지시한 전체 12개의 조사 항목이 거의 모두 조선에 관한 것으로 채워져 있는 가운데, 단 하나 러시아와의 관련을 묻은 항목이 섞여 있던 것에서도 나타난다. 그런데, 조사단의 사다, 모리야마, 사이토는 연명으로 조사보고서 「朝鮮国交際始末内探書」를 외무성에 제출함과 동시에 별도로 각자 ‘上書’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제출했다. 그중에서 사다 하쿠보의 ‘上書’는 7항목으로 구성된 견해를 기재한 것인데, ‘上書’를 마무리 짓는 제7항목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⁹

[사료 9]

○今皇国実患兵之多而不患兵之少、諸方兵士未足、東北之師頗好戰鬪翹足思乱、或恐釀成私鬪内乱之憂、幸有朝鮮之挙用之、於斯而洩其兵士鬱勃之氣、則不唯ニ挙屠朝鮮犬練我兵制、又輝皇威於海外、豈可不神速伐之乎哉、

위는 보신 전쟁의 여파가 아직 가시지 않았던 시기에 작성된 문장으로, 실제로 조선에 가서 수행한 실태조사에 기반한 감회이다. 하쿠보는 유신 정부의 군대가 여전히 충분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훈련도 부족한 현재 상황에서, 조선에 병력을 보낼 기회가 있다면, 이는 조선을 복종시킬 뿐만 아니라 일본의 병력을 조련하고, 나아가서는 황위(皇威)를 해외에 보여주는 것이 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쿠보는 훗날 회고하며 ‘정한론의 효시는 이 하쿠보다’라고 자부하는 인물이었다.

11 그렇기 때문에 사다 조사단의 파견을 통해 정한론을 논하는 것도 연구로서는 하나의 시점 이긴 하다. 본고는 사다 조사단의 조사 항목에 울릉도와 러시아에 대한 관심이 있었던 점에 유의하면서, 기존의 정한론으로 이어지는 발자취와는 또 다른 전개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3. 시점으로서의 블라디보스토크

(1)세와키 히사토(瀬脇壽人)와 마쓰시마

1860년 11월, 청나라가 러시아와 맺은 베이징 조약에 의해 러시아는 연해주를 획득했다. 이에 러시아 극동 정책의 거점이 되는 블라디보스토크의 형성이 시작되었다. 조선에서는 1860년대에 기근이 빈발하여 러시아령으로의 월경이 빈발했다고 한다. 조선인 월경자를 이용한 시베리아 개발이 우려되었기 때문에(麓慎一2010, p.134), 연해주 특히 러시아의 거점이 되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의 극동 정세 수집이 요구되고 있었다.

메이지 4년(1871), 사이고 다카모리(西郷隆盛)는 러시아로부터 사할린과 홋카이도를 지키기 위해 사쓰마번(薩摩藩) 출신 기리노 도시아키(桐野利秋)를 홋카이도로 파견했다(麓慎一2010, p.129). 메이지 6년 정변(이른바 정한론쟁)보다 조금 앞선 시기였다. 후모토 신이치(麓慎一)는 이러한 움직임을 지적한 다음, ‘사할린섬과 한반도가 러시아의 세력에 편입되는 것을 회피하기 위해 사할린섬을 방기하고 조선에서 일본의 영향력을 확립하고자 기도한 것이다’라고 서술했다(麓慎一2010, p.131). 그런데, 이른바 정한론쟁의 과정에서는 대만 출병과 조선 파병, 그리고 사할린 출병이라는 세 가지가 함께 논의의 대상에 오르고 있었다(大山梓1978). 메이지 3년(1870)부터 메이지 6년까지 사할린에서 러시아와의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 ‘러일 간 대립의 근본적인 해결이 요구되어, 이에 따라 사할린 방기 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한다(大山梓1978, p.11 위).

이러한 정세 하에 메이지 8년(1875) 블라디보스토크에 파견되어 정보수집에 종사한 것이 세와키 히사토(瀬脇壽人)였다. 세와키에 대해서는 언어학자와 해양학연구자 사이에서는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지만(岩崎克己1938), 조일 관계에서의 주목은 필자가 파악하고 있는 한, 가와카미 겐조(川上健三)에 의한 언급이 빠르다. 가와카미는 에도시대에 다케시마(竹島)로 불렸던 울릉도가 결국 마쓰시마(松島)로 불리게 되었음을 설명하면서, 메이지 9년(1876) 무토 헤이가쿠(武藤平学)의 「松島開拓之議」를 사료로 들어, 무토가 ‘在블라디보스토크 세와키 무10 역사무관(貿易事務官)을 통해 이 섬의 개척을 청원했다’고 지적했다(川上健三1966, pp.31-34). 또한 최서면(崔書勉)과 구양근(具良根)은 세와키, 무토 및 김인승(金麟昇) 3명을 언급하면서, 이들이 블라디보스토크에 체류하면서 정보탐색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했다(崔書勉1967, 具良根1997).

블라디보스토크의 세와키 히사토에 대해서는 후모토 신이치도 선행연구를 이용하여 생생히 그려내고 있다(麓慎一2023, pp.142-148). 그리고 세와키의 블라디보스토크 체류에 관해서는 가토 규조(加藤九祚)가 탈초한 『烏刺細衣斯杜屈見聞雜誌』(加藤九祚1972)를 이용하는 것이 간편할 것이다. 이는 메이지 8년(1875) 4월 7일부터 6월 14일에 이르는 것으로, 원본 사료는 외무성 외교사료관에 있다. 또한 데즈카 리쓰조(手塚律蔵=세와키 히사토) 유고 「浦塩日記」가 『中央公論』 1938년 8월호에 게재되어 있는데, 메이지 9년 4월 29일부터 메이지 11년 9월 2일까지의 일기가 단편적으로 수록되어 있다.

12 한편, 메이지 7년(1874) 10월부

터 메이지 13년 9월까지 외무경으로 근무한 데라시마 무네노리(寺島宗則)에게 보낸 세와키의 서장 10통13이 있는데, 후모토 신이치도 이 가운데 3통에 대해 언급했다. 이러한 세와키 히사토와 관련된 사료에 근거하여 이하와 같이 서술을 진행하고자 한다.

메이지 8년 4월, 세와키 히사토는 ‘청국 해안에서 러국 블라디보스토크, 포시에트 주변 시찰’을 위해 도쿄에서 출발하고(加藤九祚1972, p.64), 같은 달 21일 블라디보스토크항에 도착하여 다음 날 상륙했다(加藤九祚1972, pp.68-69).

4월 16일 오후에 나가사키항을 출항하여 블라디보스토크항을 향하던 도중, 같은 달 19일 일기에 마쓰시마(松島)를 멀리서 바라본 것을 적었다. 이것이 세와키 히사토가 처음으로 마쓰시마를 언급한 것이며 처음으로 실제 바라본 것을 기록한 것이다.

[자료 10]

(四月十九日)午後第五時過、又甲板に登り回望すれば、左辺に当て稍大なる一島ありける故、此島の名は何島と申にや、何れの国の領地に属するやと尋ねければ、士官答えて、此島の名は松島と称して日本の属島なりと云るゆえ、甚だ恠み居し処へ、仙人も偶来りければ、又尋ねしに、其の人も日本の属島と答へけり。されば我属島なりけりと始めて信じぬ。此島に人家ありやと問へば、人家はあらじと云へり。余双眼鏡を出して照し見たれども、薄暮なれば模糊として見へず。

여기서 세와키가 섬의 이름을 물어본 사관은,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는 선박 야포네츠에 승선한 사관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러시아 사관이다. 두 번째로 물어본 상대는 프랑스인이었다. 나가사키에서 북상하여 3일 정도 지나서 왼편에 보이는 섬이면서 ‘매우 큰 하나의 섬(稍大なる一島)’이란 울릉도 외에 있을 수 없다. 러시아인은 그것을 ‘마쓰시마(松島)’라고 불렀으며, 러시아인과 프랑스인 모두 그 섬을 ‘일본의 속도(日本の属島)’라고 했다. 러시아인의 답변을 세와키가 ‘대단히 의심스럽게 여기고 있었다(甚だ恠み居し)’고 하며, 프랑스인이 똑같이 말하는 것을 듣고서야 비로소 ‘그렇다면 일본의 속도였다(されば我属島なりけり)’고 한다. 세와키는 이때까지 마쓰시마(울릉도)의 존재를 몰랐던 것이다. 훗날 세와키는 ‘지난날 나가사키에서 오는 길의 바다 위에 마쓰시마라고 하는 하나의 섬이 있었다. 일본의 속도라고 들었지만, 의심스러웠기 때문에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하여 지도를 펴고 보니, 우리의 운슈 지방(雲州地方) 북쪽에 있는 다케시마 옆에 있는 섬이었다(過日長崎より来路の海上に、松島と称する一島あり。日本の属島と聞たれども、怪しければ、ウラジワストークへ来着して地図を繙き之を見れば、我が雲州の北に当る竹島の隣島なり)’고 서술한다(加藤九祚1972, p.76).

그런데, 이 이전에 데라시마 무넨오리에게 보낸 세와키의 서장 2통이 존재하는데(메이지 8년 1월 15일 자 및 同 28일 자. 『寺島宗則関係資料集』下巻, 100-1 및 100-2), 모두 마쓰시마라는 명칭은 나오지 않는다. 이들 서장에서는 러시아가 조선에 손을 뻗치는 것에 대한 우려와 그 근거로써의 블라디보스토크, 이러한 러시아에 대한 대항조치로써의 조선 대책과 블라디보스토크에 영사관을 창설할 것을 제안하는 내용이 담겨있을 뿐이다.

4월 23일, 세와키 히사토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상륙하고, 그곳에서 ‘오슈(奥州) 시라카와(白川)의 사람 무토 헤이키치(武藤平吉)라는 자가 4~5년 전부터 와서 살고 있다고 하며, 처음 대면했다(奥州白川の人、武藤平吉と云ふ者、四、五年前より来住せし由にて、初めて対面せし)’(加

藤九祚1972, p.71)고 한다. 같은 달 28일, 무토가 사는 집의 이웃이며 미국인인 코벨이라는 자가 무토를 통해 세와키에게 마쓰시마를 대여해 달라고 부탁했다고 한다(加藤九祚1972, p.76). 무토는 마쓰시마로 실제로 도향한 경험도 있는 듯한 말투였다.

14 5월 13일, ‘독일의 카피탄(独逸の加比丹)’이 세와키를 찾아왔기에, 세와키는 이 독일인에게 조선에 관해 묻고, 마쓰시마에 대해서도 물었다. 마쓰시마는 일본과 조선 어디와 더 가까운지, 인가가 존재하는지, 금은 광산이 존재하는지에 대해서였다. 이어서 일기는 러시아에 의한 사할린섬 개발에 대해 언급한 다음, ‘일본에서도 예로부터 부속된 마쓰시마라고도 들었으며, 교역의 이익을 크게 하고 싶다(我国にても古来附属の松嶋なりとも開き、交易の利を盛にし度事なり)’고 했다(加藤九祚1972, p.90). 같은 달 29일에는 세와키를 찾아온 조선인 김인승에게 다케시마의 위치에 대해 ‘다케시마는 조선에서 몇 리 정도 떨어져 있는가, 또한 일본과 얼마나 떨어져 있는가(竹嶋距朝鮮幾里程、又距日本幾許)’라고 필담으로 질문하기도 했다(加藤九祚1972, p.97).

6월 7일, 세와키는 블라디보스토크를 출항하여 귀국길에 올라 나가사키로 향했다. 그 도중 같은 달 9일에 마쓰시마를 바라본 기록이 있다(加藤九祚1972, p.108). 이날 오전 10시쯤, 남쪽에 하나의 섬이 보였기에 선장에게 물어보니 ‘이것이 바로 일본의 마쓰시마다(是こそ日本の松島なり)’라고 했다. 이에 우선은 쌍안경으로 바라보고, 이어서 접근하여 바라보았더니 ‘커다랗고 높은 하나의 산맥이 남북을 관통하고, 서쪽과 북쪽에는 수백 개의 계곡이 늘어서 있으며, 커다란 소나무가 우거지고, 또한 잡목도 있다. 산허리에 폭포로 보이는 두 갈래의 백련(百鍊)과 같은 것이 아득히 먼 바다에서 보인다(巍々峽たる一山脈、南北に貫き、西面と北面には数百の溪谷相連り、大いなる松樹繁茂し、又雑木もあり。山腹に瀑布と覺しき二条の白練の如き物、遙に遠海より見ゆ)’고 한다. 그리고 ‘내가 배에서 조망하니, 광산가들이 말하는 원산(原山)과 차산(次山)이 있다. 분명 금속이 생산될 것이다(余船中より眺望するに、鉱山家の所謂、原山あり次山あり、必ず金属を生ずべし)’고 보았다.

『中央公論』誌에 실린 데즈카 리쓰조 유고 「浦塩日記」는 발췌 초록이기 때문에 마쓰시마라는 명칭은 일절 등장하지 않지만, 메이지 11년(1878) 4월 20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도착한 이후의 세와키에 대해 ‘특히 눈에 띄는 것을 일기에서 찾는다면, 마쓰시마 개척을 열심히 본성(本省)에 건의하고 있는 것과…(特に目ぼしいものを日記から拾へば、松島の開拓を盛んに本省へ建議している事と…)’(岩崎克己1938, p.55)라고 하고 있기도 하다. 앞서 서술한 것처럼, 이들 기사를 통해 볼 때 세와키는 시찰 파견을 위해 블라디보스토크로 향하기 전까지 마쓰시마의 존재를 몰랐으며, 나가사키와 블라디보스토크를 잇는 배 위에서 실제로 목격한 것과 러시아인 사관 등에게 받은 교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전해 들은 정보와 지도를 보고, 마쓰시마와 그 가치를 알게 된다. 약년표에서 볼 수 있듯이 메이지 9년에 블라디보스토크 무역사무관(貿易事務館)이 설치되고, 세와키가 초대 무역사무관으로 부임(16하자, 고다마 사다야스12(児玉貞易), 무토 헤이가쿠(武藤平学), 사이토 시치로베에(斎藤七郎兵衛) 등이 마쓰시마 개척원을 연달아 제출하게 되었고, 이러한 개척원 제출과 병행되는 형태로 데라시마 무네노리에게 보낸 서장 속에서 마쓰시마에 대한 언급이 여러 차례 반복된다.

이러한 서장의 최초가 메이지 10년 5월 22일 자(『寺島宗則関係資料集』下巻, 100-3) 서장으로, ‘…공신(公信)으로 말씀드린 대로 마쓰시마 건에 착수하고 싶습니다. 다른 곳에서 이 섬과 조선 북부에 침을 흘리고 있다고 하니, 선수를 빼앗기면 천 번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입니다(…公信=申上候通松島一件=着手イタシ置申度候、他ヨリ同島ト朝鮮北部=垂涎イタシ居候趣、先鞭ヲ着ラレ候テハ千悔モ無益ニ属可申候)’라고 말하고 있다. 같은 해 7월 26일 자에 서는, 같은 해 봄부터 세와키가 마쓰시마 개척에 대해 건의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세이난 전쟁(西南戦争)에 대한 대처에 바쁘게 쫓기는 가운데, 정부 차원의 결의가 늦어지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이번 봄 이래로 마쓰시마 개척에 관해 건백했지만, 사쓰마에서의 사건으로

대단히 바쁘실 것이기에 결의가 늦어지고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当春以来松島御開拓之儀 建白仕候処、薩一件御多忙中ニ付御決議御延引ニ可有之奉存候]}. 이러한 다음, 마쓰시마 개척 이야말로 우선적으로 임해야 할 당장의 과제임을 강조했다(이 일은 작금의 일대 급무이니, 서둘러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此儀、方今之一大急務ニ付、急速御許容御座候様 奉懇願候]). 그리고 이 서장의 마지막은 ‘마쓰시마는 반드시 개척을 명령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를 위해 분골진력(粉骨盡力)하겠습니다(松島ハ是非開拓被仰付候様致度、国家之御為粉骨尽力可仕候)’라고 마무리 짓고 있다.

(2)복수의 마쓰시마 개척원(松島開拓願)

메이지 9년(1876)에서 메이지 11년에 걸쳐 마쓰시마 개척원이 연달아 제출되었다. 그 효시가 되는 것이 메이지 9년 7월 자로 제출된 무토 헤이가쿠의 원서(川上健三1966, pp.31-34 및 浦野起央2007, pp.4445-4446)이다. 가와카미와 우라노(浦野) 모두 이 원서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제출된 것으로 추측했지만, 메이지 10년 5월에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제출된 무토 헤이가쿠의 두 번째 개척원에는 ‘작년 도쿄에서 건백했지만(客歳東京ニ於テ建白セシカトモ)’이라고 되어 있으므로, 위의 원서는 도쿄에서 제출된 것이다.

①무토는 원서 속에서 ‘마쓰시마와 다케시마는 모두 일본과 조선 사이에 있지만, 다케시마는 조선과 가까우며 마쓰시마는 일본과 가깝다(松島ト竹島ハ共ニ日本と朝鮮トノ間ニ在レトモ竹島ハ朝鮮ニ近ク松島ハ日本ニ近シ)’고 했는데, 그가 말하고 있는 마쓰시마란 울릉도를 말한다. 마쓰시마의 서북쪽 해안은 단안 절벽으로 되어 있는 것에 비해 남쪽 해변은 산에서 바다 쪽으로 완만하며, ‘산 정상에서 3~4분(分) 떨어진 곳에 그 폭이 100간(間)이 되는 폭포수가 있으므로, 평지에 논밭을 지어 경작하기에 편하다(山頂ヨリ三四分ノ所ニ其幅數百間ナル瀑水アレハ平地ノ所ニ田畑ヲ設ケ耕作スルニ便ナルヘシ)’고 서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섬에 대해 무토는 블라디보스토크 주재 미국인 코벨에게 이야기를 들었다고 한다. 코벨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마쓰시마라는 일본의 속도가 있음에도 일본인은 손을 대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데, ‘일본 관할의 섬을 타국이 소유하게 한다면, 그 나라의 보물을 타국에 주는 것이다(日本ノ所轄タル島ヲ他国ノ所有トナサハ其国ノ宝ヲ他国ニ授与スルナリ)’. 마쓰시마에는 광산, 거목, 어획자원이 있고, 자신에게 대여해 준다면 ‘매년 큰 이익을 얻으려 한다(毎年大利ヲ得ン)’라고. 무토가 마쓰시마에 접근해서 살펴본 결과, 광산의 유무는 불명확했지만, 산림자원이 풍부한 것은 확실했다. ‘그 섬의 큰 나무를 베어서 그 좋은 재료를 지금 성대하게 개항하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수출하고, 혹은 시모노세키에 보내 매각해서 그 이익을 얻을 것이다(彼島ノ大木

13

を伐リ其良材ヲ今盛大ニ開港スル「ウラジヲストック」ニ輸出シ或ハ下ノ関ヘ送りテ売却シ其利益ヲ得ン). 그리고 정말 광산이 있다면 그것은 그것대로 좋은 일이고, 일본의 어민과 농민을 ‘파견 개척(植ヘ開拓)’한다면 막대한 이익이 생길 것이 틀림없다. 특히 조일수호조규를 맺은 이상, 한반도 북부의 함경도 주변에도 개항장이 생겨서 일본을 왕래하게 된다면, ‘마쓰시마는 그 길목에서 중요한 섬이다(松島ハ其道路ニシテ要島ナリ)’. 또한 선박으로 일본해(동해)를 항행하는 중에 거친 바람을 만났을 때 ‘그 섬에 정박하면 매우 편리하다(此島ニテ碇泊スレハ甚便利ナリ)’. 블라디보스토크항에서의 수출입이 증대하고 있는 지금, 마쓰시마에 항구를 열고 등대를 설치하면, ‘각국의 수출입에 종사하는 항해가들도 거친 바람을 만나거나 혹은

연료와 물이 모자랄 때에는 이 항구에 입항할 것이니…각국의 항해가들도 안도하고(各国輸出入ノ航海家モ難風ニ逢ヒ或ハ薪水ニ乏シキ時ハ本港ニ入港スベケレバ…各国航海家ノ安堵ニ歸シ)’라고 했다. 이리하여 마쓰시마는 ‘황국에 이바지할 수 있는 섬이며, 남쪽의 오가사와라 섬보다 더욱 힘써서 살펴보아야 하는 땅이다(皇國之裨益ニ成ヘキ島嶼ニシテ却テ南方ナル小笠原島ヨリモ一層專務之地)’라고 무토는 말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 마쓰시마에 등대를 설치할 것을 서둘러 요청했다.

②고다마 사다야스의 마쓰시마 개척원은 메이지 9년 7월 13일 자(浦野起央2007, pp.4444-4445)로 제출되었으며, 위의 무토 헤이가쿠가 제출한 원서와 같은 달에 제출된 것이다. 다만, 고다마의 원서 안에 ‘세와키군의 노항잡지(露港雜誌), 무토씨의 노항기문(露港記聞)을 읽고, 또한 그 경황 등을 전해 들었다(瀬脇君ノ露港雜誌、武藤氏ノ同港記聞ヲ閱見シ、且其景況等伝承スル)’, ‘지금 무토씨의 마쓰시마에 대한 건백을 자세히 살펴보건대(即今武藤氏松島ノ建白ヲ熟閱スルニ)’라고 하고 있으므로, 무토의 원서를 입수하여 열람한 뒤, 자신의 견해를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이때 고다마도 ‘그 남쪽의 오가사와라 섬과 같은 것도 이미 착수할 시기를 놓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섬과 비교해 보면 마쓰시마는 더욱 중요한 섬(彼ノ南方ナル小笠原島ノ如キモ既ニ着手ノ期ヲ稍失スルニ似タリ而シテ此島嶼ニ比スレハ松島ハ一層ノ要島)’이라고 말한다. 고다마의 원서에서 말하고 있는 개척 내용은, 광산개발이 빠져 있다는 점을 제외하면 무토와 동일하며, 무토와 다른 점은 ‘마쓰시마 착수 절차 예상(松島着手之階梯見込)’으로 개척 순서를 제시한 것이었다. 또한 우라노는 이 원서가 도쿄에서 제출된 것으로 보고 있다.

③똑같은 메이지 9년 12월 19일, 지바현의 사이토 시치로베에가 마쓰시마 개척원을 제출했는데, 원서 제출 당시 사이토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상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원서의 수신인은 블라디보스토크 무역사무관 세와키 히사토였다.

17 사이토의 원서는 우선 블라디보스토크

크의 급격한 상업 발달 상태에 관해 서술한 다음, ‘러시아 상인들은 물론 각국 상인들이 나날이 상점을 열고, 인가가 매년 200채 혹은 300채씩 늘고 있기 때문에, 가까운 숲의 나무는 모두 베어버려서…큰 목재는 본국 나가사키 또는 수십 리 떨어진 몽골 지방에서 운송해 오므로 대단히 값이 비싸다(魯國商人ハ勿論各国商人共追日開店打続、人家毎年式百軒或ハ三百軒宛相増候故、近林之木立伐尽シ…大材ハ本国長崎又ハ数十里相隔居候蒙古地方ヨリ運送仕候得ハ格外高直)’라는 사정부터 이야기를 시작한다. 그래서 ‘이 항구와 중국의 상하이 등으로 위의 벌목을 실어 보내서 매각하고 싶다(當ママ潮港并ニ支那上海等ヘ右伐木積送売捌キ申度)’고 한다. 그리고 마쓰시마는 ‘러시아와 조선 양국의 가까운 바다에 있으며, 또한 각국이 주목하고 있는 듯하니, 그들이 착수하기 전에 섬 개척을 지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魯朝兩國之近海ニ有之、且各国着目仕居候様子ニ御座候得ハ、彼等方ニテ着手不致内、開島被仰付候様仕度)’라고 하고 있다.

④메이지 10년 5월 6일, 무토 헤이가쿠가 제출한 두 번째 개척원은 첫 번째 개척원에 근거14하면서 새롭게 조선인들 및 프랑스인 오지에게 청취한 내용으로, 마쓰시마 개척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이때 ‘작년 4월 중 러시아 선박이 그 섬 주위를 측량했다고 하니, 우선 러시아에서 이 섬을 주목하여 개척하려는 의도일 것이다(客歲四月中、露國船彼島ノ周圍ヲ測量セシ由ナレハ、第一露國ニテ此島ヲ着目シ開ントスル意ナルヘシ)’라고 하며, 일본이 마쓰시마를 개척하지 않고 방치하여 ‘외국인이 착수한다면 잘못을 후회해도 소용없을 것이다(外人ヨリ着

手セラル、時ニ当テハ臍ヲ噬ムトモ及フマシ)’고 경종을 울리고 있다. ‘외국인이 착수하기 전에 어부나 나무꾼 또는 범죄자 등을 보내 개간하여 황국의 속도임을 분명히 각국에 빛(外人ノ着手セサルノ前ニ、漁夫或ハ樵夫又ハ懲役人抔ヲ遣リ開墾シテ皇国ノ屬島タル事ヲ著シク各国ニ輝カ)’낼 필요가 있다고 한다. 발신인명이 노령포조항재류 무토헤이가쿠(露領浦潮港在留武藤平学)로 되어 있으므로,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제출한 것일 것이다.

⑤메이지 11년 8월 15일 자로, 나가사키현하 시모무라 유하치로(長崎県下村輪八郎) 및 지바현하 사이토 시치로베에(千葉県下斎藤七郎兵衛)의 연명으로 제출된 마쓰시마 개척원은, 시모무라가 나가사키를 떠나 블라디보스토크항을 향하던 도중 마쓰시마를 보고 ‘거목이 우거지고 일본 선박이 정박할 만한 작은 항구도 보이며, 또한 어업의 이익도 있을 것(巨木繁茂シ和船ノ碇泊可致小港モ相見、且漁獵之益モ可有之)’이라고 생각한 것이 계기가 되었다. 수신인은 무역사무관 세와키 히사토로 되어 있으며, 이때쯤 세와키는 블라디보스토크에 있던 것이 분명(岩崎克己1938)하기 때문에, 원서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제출된 것이다.

이상 다섯 점의 마쓰시마 개척원을 개관했다. 원서를 제출한 장소는 도쿄(①②)와 블라디보스토크(③④⑤) 두 곳으로 나뉘지만, 내용을 보면 모두 블라디보스토크와의 관련으로 작성된 것뿐이다. 여기서 개척 대상으로 거론된 마쓰시마란, 나가사키항과 블라디보스토크항을 잇는 항로상에 보이는 섬으로서의 마쓰시마이며, 러시아와의 관련 속에서 관심이 높아진 섬이라는 공통성을 갖는다. 마쓰시마 개척원을 언급한 선행연구는 많지 않은데, 이들 ①~⑤의 마쓰시마 개척원과 같은 시기에 제출된 다케시마 도해원(竹島渡海願, 메이지 10년 1월, 도다 다카요시[戸田敬義]) 및 외무성 기록국장 와타나베 히로모토(渡邊洪基)에 의한 고찰「松島之議」를 같은 선상에서 논하며, 오직 같은 울릉도를 다케시마로 부르는 사람과 마쓰시마로 부르는 사람이 있었음을 지적하는 것에 머물러 있었다(川上健三1966). 위에서 개관한 ①~⑤와 도다의 다케시마 도해원은 내용적으로는 같은 선상에서 논할 수 없는 것이며, 와타나베 히로모토의 논술은 개척원이 아니므로, 더욱 같은 선상에서 다룰 수 없는 것이다. 특히 ①~⑤의 마쓰시마 개척원은 근세 조일 관계사의 연장선상에서 논할 수 없다는 것임에 깊이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나오며

메이지 14년(1881),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이 금지되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본인의 도항과 울릉도에서의 활동은 사라지지 않았다. 메이지 29년(1896), 러시아는 울릉도에서의 목재 벌채권을 한국으로부터 취득했고, 메이지 32년(1899) 아오키(靑木) 외무대신은 시마네와 돗토리 두 현지사에게 현민이 울릉도에서 목재를 벌채하는 것을 단속하도록 요청했으며, 한국 정부 또한 울릉도에서 일본인이 퇴거하도록 요청했다. 메이지 33년(1900) 6월, 한국 정부는 울릉도를 현지 조사하고, 다시 일본인의 퇴거를 요청했다. 하지만 메이지 35년(1902) 3월이 되자 일본인 경관 4명이 울릉도에 상주하기 시작했다.¹⁵

이러한 동향에 대해서는 나시토 세이추(内藤正中2000, 제4장)가 주로 산인 지방(山陰地方)과 울릉도의 관계에 중점을 두면서 서술해 왔다. 확실히 지리적으로는 산인 지방(돗토리현, 시마네현, 야마구치현)과 울릉도는 가까이 있으며, 에도시대의 다케시마(울릉도) 도해의 역사

를 생각해 보면, 이러한 접근 방법이야말로 올바른 것이라고 간주되어 왔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조일 관계사에서 근세와 근현대의 이행기에 대해서는 19세기의 전개를 충분히 접합시켜 오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본고는 러시아의 존재를 개재시킴으로써 이에 대한 극복을 시도한 것이다.¹⁶

참고문헌

- 池内敏 [二〇一六] 『竹島 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中公新書七三 - 七四頁
岩崎克己 [一九三八] 「手塚律蔵と瀬脇壽人」温知会講演速記録第五八輯
大山梓 [一九七八] 「征韓論争と樺太問題」『軍事史学』十四 (一)
小川亜弥子 [二〇〇九] 「佐倉出ノ人」手塚律蔵と洋学『佐倉市史研究』二二
加藤九祚 [一九七二] 「浦塩物語 (一)」『ユーラシア』四
川上健三 [一九六六]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
具良根 [一九九七] 「日本外務省七等出仕瀬脇壽人と外国人顧問金麟昇」『韓日関係史研究』七
佐田白茅 [一九〇三] 『征韓論の旧夢談』非売品
沈箕載 [一九九七] 『幕末維新日朝外交史の研究』臨川書店
崔書勉 [一九七六] 「他意開国「江華悲劇」の教訓」『韓』第五卷五・六合併号
内藤正中 [二〇〇〇] 『竹島 (鬱陵島) をめぐる日朝関係史』多賀出版
麓慎一 [二〇一〇] 「幕末・維新时期における帝政ロシアと日本」、明治維新学会編『講座明治維新』
第一卷、有志舎
―― [二〇二三] 『一九世紀後半における国際関係の変容と国境の形成』山川出版社
松本智也 [二〇二三] 『〈文事〉をめぐる日朝関係史 近世後期の通信使外交と対馬藩』春風社

*관련 약년표

메이지 8년(1875)

- 1월 15일 寺島宗則에게 보내는 瀬脇壽人の 서장(『寺島宗則関係資料集 (下)』100 - 1).
1월 28일 위와 같음(위의 책, 100-2).
4월 7일 출항.
4월 19일 선상에서 마쓰시마를 멀리 바라봄.
4월 23일 블라디보스토크에서 武藤平학과 만남.
4월 28일 武藤과 마쓰시마에 대해 이야기함.
5월 13일 독일인과 마쓰시마에 대해 이야기함.
5월 19일 金麟昇과 마쓰시마에 대해 이야기함.
6월 9일 선상에서 마쓰시마를 멀리 바라봄.¹⁷

메이지 9년

- 6월 12일 블라디보스토크에 무역사무관 설치. 초대 무역사무관에 瀬脇壽人.
7월 武藤平学, 마쓰시마 개척원.
7월 13일 児玉貞易, 위와 같음.
*8월 渡邊洪基「松島之議」.
12월 19일 斎藤七郎兵衛, 마쓰시마 개척원.
*메이지 9년~10년 3월, 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何.

메이지 10년

1월 戸田敬義, 다케시마 도해원.

5월 22일 寺島宗則에게 보내는 瀬脇壽人の 서장(『寺島宗則關係資料集(下)』100-3).

5월 26일 武藤平学, 마쓰시마 개척원.

7월 2일 瀬脇壽人, 마쓰시마 개척 문의.

7월 26일 寺島宗則에게 보내는 瀬脇壽人の 서장(『寺島宗則關係資料集(下)』100-4).

메이지 11년

5월 25일 寺島宗則에게 보내는 瀬脇壽人の 서장(『寺島宗則關係資料集(下)』100-6).

7월 31일 위와 같음(위의 책, 100-6).

8월 15일 斎藤七郎兵衛, 마쓰시마 개척원.

1 『通航一覽』卷二八二・魯西亞国部十(国書刊行会本(1913年)第七, p.192).

2 『ペリー遠征記』, p.123, 序論・第5節.

3 「旧簡聴」卷五 수록(아이치현 니시오시 이와세문고, 158-77).

4 혼다 도시아키(本多利明)의 「蝦夷之道知辺」(홋카이도대학 부속도서관)에는 다이코쿠야 고다 유(大黒屋光太夫)의 「莫斯科未亜寄語」가 첨부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莫斯科未亜寄는 아마 러시아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또한 이시하라 기헤에(石原喜兵衛) 「太平莫斯科未亜敗北記」(1807, 홋카이도대학 부속도서관)의 주된 내용은 분카 정묘 사건(文化丁卯事件, 분카 4년 로구 사건[文化四年露寇事件])으로, 그러한 이상 서명에 보이는 莫斯科未亜 또한 러시아를 가리키는 것이다. .

5

[자료3]이 수록된 「旧簡聴」은 『国書総目録』으로 파악하는 한 이와세문고(岩瀬文庫) 소장본 외에 없다. 이와세문고 소장목록의 해제에 의하면, 「旧簡聴」은 전 10권으로 구성된 자필고본으로, 편자는 東都本街歌仙酒肆美舎倉八代目ヲサ丸(千金舎ヲサ丸)이다. 덴포 14년(1843)의 자서(自序)을 붙였다고 한다. 그 내용은 에도에서 작성된 잡기수필이며, 세상에 유포된 사건과 고서, 고기록의 사본 등으로 다양하다고 한다. 수록기사의 가장 최신 날짜는 분큐 3년(1863) 8월로, 이는 저자가 이어서 쓴 것으로 추측된다.

6 村馬藩宗家史料「寛政五年ち 御内密御内用往復書状控」記録類／朝鮮關係／M5(쓰시마역사연구센터)

7 가고시마대학 부속도서관 다마자토문고(玉里文庫) 안에 「俄羅斯海寇事略」 전 5책이 있으며, 그 제5책 부록 속 「寛政4年魯西亜信使始末」이라는 항목에 락스만 내항 때의 관련 사료가 수록되어 있다. 이때 러시아 사절을 ‘信使’라고 부른 사례를 다른 사례는 알 수 없으나, 그렇게 부르는 것도 가능했음을 여기서 알 수 있다. ‘信使’ 또한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에서 왕래한 외교사절을 가리키는 말이다. 또한 다마자토문고는 시마즈 히사미쓰(島津久光)에 의해 시작된, 다마자토시마즈家에 의한 수집자료군으로, 특히 히사미쓰에 의한 자료수집이 정력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다마자토문고 해제를 통해 알려져 있다.

8 『朝鮮外交事務書』卷四, 日本外務省.

9 마찬가지로 메이지 9년에 시마네현이 메이지정부 중앙에 제출한 「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 속의 ‘竹島外一島’의 서술이 극도로 객관적이고 정확한 것은, 해당 문의서에 수록된 11점의 자료군이 겐로쿠다케시마잇켄과 극도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던 구 돗토리번에 유래하는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도 현실의 정치절충에 입회했던 사람들의 주변에 전래된 사료이기 때문에 이러한 객관성이 담보된 것이다. 쓰쓰이와 같은 막신 레벨에서는 백 년 이상이나 전에 일어난 겐로쿠다케시마잇켄에 관한 각종 사료를 자세히 점검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을 것이다.

10 A는 『朝鮮外交事務書』卷三, B는 같은 책 卷四.

11 사다 하쿠보(1903)의 서문에서, 門人 이토 아키라(伊藤明)가 ‘메이지 초년에 정한론이 일어난 것은 선생님이 먼저 주장한 것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明治初年に征韓論の起つたのは、先生の首唱なりと伝承せり)’라고 관심을 끌자, ‘실로 질문대로다. 정한론의 효시는 이 하쿠보다(如何にも御尋問の通り、征韓論の嚆矢は、此の白茅である)’라고 말한다.

12 이외에 『烏刺細窓斯杜屈見聞雜誌』라는 같은 이름으로 메이지 8년 10월 16일부터 메이지 9년 1월 4일에 걸친 내용의 일기가 있는데(国立公文書館 소장), 이는 모두에 ‘筆者武藤平学、校正者瀬脇壽人’로 명기되어 있다. 내용으로 보아도 일기의 작성자는 세와키가 될 수 없으며, 작성자와 등장인물의 인간관계를 보아 무토 헤이가쿠의 일기로 판단할 수 있다.

13 寺島宗則研究会 편『寺島宗則関係資料集(下)』1987, 示人社.

14 세와키의 일기 4월 28일 자 중 관련부분은 이하와 같다(加藤九祚1972, p.76).

미국인 코벨이라고 하는 자가 지금 블라디보스토크에 와서 살고 있는데, 무토의 이웃집에 가게를 열고 거주했다. 우리가 이곳에 온 것을 듣고 무토에게 말하길, “이번에 일본에서 이곳으로 영사관이 왔다고 들었는데, 당신이 영사에게 부탁하여 내가 그 마쓰시마를 5년간 빌릴 수 있도록 주선해 주십시오. 세금은 내겠습니다.”라고 무토에게 부탁하기에, 무토가 “그 섬에서 금이나 은이라도 나오니까?”라고 묻자 웃으며 답하지 않았다. 그가 다시 말하길, “만약 빌려준다면 지금 하나의 방책이 있습니다. 제가 일찍이 그 섬 주변을 돌며 항구 등도 확인해 놓았는데, 무인도이니 몰래 가서 살려고 합니다.”라고 농담을 섞어가며 말했다고 한다(商人ユーベルと云る者、今現にウラジワストークに来住して、武藤が寓居の隣家に臣店を開き居住せり。余等が本地に参着せしを聞き、武藤に謂て曰く、今回日本より当地に領事官の参りし由、請ふ足下より領事に願ふて、我には彼の松島を五年の間貸し給ふべく周旋せられよ、運上は出さんと武藤へ頼みしゆえ、武藤彼の島より金銀の類にても産するやと尋ねければ、笑て答へず。彼は又曰く、若貸給はざれば茲に一策あり、我嘗て彼の19島の周囲を回り、港なども見定め置しに、無人島なれば竊に行て居住せんと、戯語を交へ云し由なり).

15 김인승은 다케시마는 강원도 삼척부에 속하고, 주위는 1,000리며, 토지는 비옥하여 물산이 풍부하다는 것, 나라에서 도항을 금지한 섬이기 때문에 사람이 살지 않는다는 것 등을 말했다.

16 산조 사네토미(三条実美) 태정대신에게 보낸 데라시마 무네노리 외무경의 상신서(메이지 9년 2월 19일 자)에서, 블라디보스토크에 무역사무관 설치의 필요성을 상신하고, 서면 말미에 같은 달 28일 자로 ‘문의하신 내용을 알았습니다(伺之趣聞届候事)’라는 판단이 보인다. 데라시마의 상신서에는 무역사무관 설치의 필요성을 방증하기 위한 갑을 두 통의 첨부서류가 있으며, 그 중 한 통은 세와키 히사토에게 보낸 무토 헤이가쿠의 서장(메이지 9년 1월 19일 자)이다. 이것은 ‘나가사키현 상인 하라다 모키치로 및 아리타 이노스케 두 명이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간절히 요청한 내용을 다음에 적는다(長崎県商原田茂吉郎・有田猪之助兩人「ウラジワストーク」ニ於テ懇願致候ママ赴左ニ記)’라고 표제를 붙인 것이다(「自明治九年二月 露国浦潮港へ貿易事務官トシテ瀬脇壽人赴任ノ件」).

17 또한 사이토 시치로베에와 세와키 히사토는 在블라디보스토크 상인과 무역사무관이라는 공적인 관계뿐만 아니라, 세와키가 사쿠라번(佐倉藩)의 보호를 받고 있었을 때부터 이미 알고 있는 사이였다. ‘사이토 시치로베에라고 하는 사람은 사쿠라의 상인 집안 출신으로, 히사토가 사쿠라 잠복 시절부터 친하게 지내고 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한탕 벌 생각으로 히사토를

따라 블라디보스토크로 온 것입니다’(岩崎克己1938, p.54). 조슈번(長州藩)에서 태어나 양학(洋學)에 뛰어났던 데즈카 리쓰조는 분큐 2년(1862)에 에도에서 존양파의 습격을 받아, 그 뒤로는 사쿠라에 잠복하여 세와키 히사토로 이름을 고쳤다. 이에 관련해서는 이와사키(1938) 외에 오가와 아야코(小川亜弥子, 2009).

【토론문】

<2024. 3. 6일 월례발표회>

池内敏 「근세 근대 이행기의 한일관계와 러시아」

토론 현명철

◎ 본 발표는 근세 근대 이행기 블라디보스토크의 외교관을 중심으로 일어난 울릉도 개척원의 발생을 러시아의 존재를 개재시켜 살펴보려고 한 것.

개인적으로 麓慎一씨의 연구가 소개되어서 과거를 생각하면서 재미있게 읽었다.

<질의>

1. 1장. ‘러시아의 남하란 무엇인가’에서 정리되지 않은 사실과 검토되지 않은 사료를 제시하였다. 특히 <사료3>은 황당하다. ①御達이라는 표현은 藩主가 가신들에게 내리는 直達이다. 노중에게 보내는 글에 사용되는 용례를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② 1803년 단계에서 러시아는 조선과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다. 아직 국경을 접하고 있지 않은 러시아의 조선 침공을 언급하는 것 등은 후대의 상상이며 창작이라 보인다. ③이런 「舊簡聽」과 같은 사료를 사용하는 것은 발표문의 가치를 떨어뜨린다. 이 사료를 소개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이 필요하다. 1689년 네르친스크조약-1860년 베이징조약

2. 1장은 발표자의 의도가 명확하지 않으며, 러시아의 남하정책과 과정에 대한 기존 연구 성과를 반영하고 있지도 않다. 발표문 전체에서 생략해도 좋은 부분이라 보인다.

3. 2장. ‘막말 유신기 일본의 울릉도 인식과 러시아’에서

이 부분이 3장과 더불어 발표문의 중심이 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명확한 견해나 판단이 보이지 않고 중요한 사료를 제시하지 못하였다. 막말 유신기 당시에는 한일관계를 비롯 기존 막부 외교정책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루었으며, 울릉도 독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토론자도 96년도에 「개항기 일본의 독도인식(1996년)」을 발표한 바가 있다. ①<사료7>은 당시 메이지 정부가 여론을 받아들여 독도에 대해서는 막부에 의해 포고된 사실이 아무것도 없다고 하여 독도를 무주지로 자리매김하고 울릉도에 대해서도 지금은 무인도와 같다고 해서 국제법상 침탈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당시 조슈(長州)를 중심으로 한 여론을 반영하고 있다. 이 보고서에 첨부된 자료 중에는 1690년대 막부의 결정(울릉도 독도가 일본의 영토가 아니다)이 실책이었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으며, 나아가 제주도에 대해서도 ‘원래 조선의 영토가 아니었다’고 지적하여 침탈할 의도를 표출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그런데 발표자는 이를 “...쓰시마번의 관계자였기 때문에 울릉도의 내력에 관한 설명도 객관

적이었던 것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다. 무엇이 객관적인지 근거가 무엇인가.

- ② 위 문제와 관련한 여론을 메이지 정부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국제법에 의거하여 수정해 나가는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발표자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듣고 싶다.

4. 3장 시점으로서의 블라디보스토크 : 울릉도 개척원이 러시아와의 연관성에서 발생한다는 논지를 전개한 부분으로 2장과 더불어 발표문의 중심이 된다고 생각한다.

(1) 「세와키 히사토와 마쓰시마」에서 : 외무성 7등출사 블라디보스토크 무역사무관 瀬脇의 경험에 대한 설명을 길게 하고 있다. 러시아인과 프랑스인이 울릉도를 일본의 속도라고 말했기에 울릉도가 일본의 속도라고 생각하고 울릉도 개척원을 제출하게 된 내용을 麓씨와 上川健三의 연구를 섞어서 장황하게 설명하고 있다.

- ① 이들이 울릉도가 조선 영토임을 몰랐기 때문에 행한 일임을 설명할 필요가 있고, 또 국가권력(메이지 정부)이 이를 허가할 수 없었던 事實도 서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발표자의 견해는?

(2) 1876-1878년에 걸쳐 복수의 마쓰시마 개척원(5점 : 무토, 고다마, 사이토, 무토, 시모무라와 사이토)이 블라디보스토크와 도쿄에서 제출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

- ① 12쪽 “ 마쓰시마와 다케시마는 모두 일본과 조선 사이에 있지만, 다케시마는 조선과 가까우며 마쓰시마는 일본과 가깝다 ” → 마쓰시마는 울릉도이다. 오해나 오류가 아닌가. 조선과 가까운 다케시마가 울릉도가 되고 상대적으로 일본과 가까운 마쓰시마가 독도라고 이해된다. 무토를 비롯 당시 이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혼동하고 있었고 생각되는데 발표자의 견해는

- ② 1877년 3월 시마네현이 울릉도(다케시마)와 독도(마쓰시마)를 자신의 판도에 넣을 것인지 내무성에 질의하였고 이를 내무경 오쿠보(大久保利通)가 우대신 이와쿠라(岩倉具視)에게 다음과 같이 품의하였다.

일본해 내에 있는 죽도(울릉도) 외 1도를 지적편찬에 넣을 것인가에 대한 품의 죽도(울릉도)를 관할로 할 것인가에 대해 시마네현으로부터 별지와 같이 질의가 있어서 조사해 본 결과 울릉도는 1692년 조선인이 입도한 후 별지 서류에서 요약 정리한 바, 1696년 구정부의 평의, 제2호 역관예의 통보서, 제3호 조선에서 온 서한, 제4호 이에 대한 우리나라의 답서 및 보고서 등과 같이 1699년에 이르러 해결되어 우리나라와는 관계없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러나 판도의 취사는 중대한 사건이므로 별지서류를 첨부하여 확인하기 위해 품의 합니다.

이에 대해 태정관이 “질의한 바 죽도(울릉도) 외 1도(송도)는 우리나라(일본)와는 관계 없음을 명심할 것”이라는 답을 내렸다. 따라서 위 개척원은 허가되지 않았음을 지적해야 할 것 같은데 어떤지요.

5. ‘나오며’에서

‘1881년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이 금지되었지만 실질적으로 일본인의 도항과 울릉도에서의 활동은 사라지지 않았다.’라고 표현하였는데, 이는 이전에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을까?

→ 1877년의 메이지 정부의 지시를 민간은 알지 못하였으며, 발달한 어선(증기선)을 바탕으로 울릉도 독도 지역의 어업은 점차 융성하였다. 나아가 그곳에 거주지를 장만하는 경우(조선인과 잡거)도 있어서 외교적 분쟁이 발생 → 조선의 요청 → 일본인의 울릉도 도항 금지령 →

무시하고 도항 →(분란발생)하였던 과정을 이해한 설명이 필요하다. 아울러 조선 전시기를 거쳐서 조선 조정의 금지에도 불구하고 울릉도를 무대로 어로활동을 하였던 사람들의 모습도 함께 서술해야 균형잡힌 논문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조선 조정이 금지하였다고 해서 울릉도가 무인도가 된 것은 아니었다. 이에 대해서는 『승정원일기』에서 ‘울릉도’를 검색해 보면 수토상황을 비롯 울릉도에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총평

발표 제목과 내용이 동떨어진다. 근세 근대 이행기의 한일관계는 전혀 기술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조연을 하자면 「1870년대 후반의 울릉도 개척원과 러시아」정도로 좁혀서 기술하면 좋을 것 같다. 아울러 울릉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래야 좋은 사료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이다.<끝>

【제1주제 원문】

- 1 -

韓日関係史学会 第 211 回月例発表会 (2024.03.09)

近世近代移行期の日韓関係とロシア

池内 敏

はじめに

江戸時代の日朝関係を代表する朝鮮通信使も、結果的には文化八年（一八一）の対馬での交流を最後とし、そののち何度か実施が検討されるがいずれも実現しなかった。十九世紀には西欧勢力の日本への接近が頻度を増し、それへの対処に追われるなかでやがて開国へと至り、その動向はアジア諸国との外交関係が後景に退いていくのと軌を一にすると考えられてきた。開国は西欧諸国との開国として理解され、欧米を基準とする近代社会への参入が、こののちの日本の歴史を歩む上での評価の軸とされるようになった。アジアのなかでいち早く欧米基準での近代化を進めた日本は、かつて欧米から迫られた方式をもって周辺諸国に対峙し、あたかも欧米諸国が日本に対して行ったかのような姿勢で清朝中国や朝鮮に開国を迫った、と理解されてきた。これはこれで一つの説明の仕方としてはありうるし、おそらくは通説的な理解として定着している歴史の見方かもしれない。

けれども、欧米から強いられた開国を、その強いられたのと似たようなやり方で周辺諸国に開国を迫った、という図式は極めて観念的・感情的であり、もう少し丁寧な歴史叙述が必要なのではないかという問題提起も他方でなされている。それは鎖国から開国へという歴史の変動をどのように再構成し再考するかという課題と密接に関連する。

本稿は、そうした課題に接近するための小さな歩みに過ぎないし、とりあげる素材も上- 2 - 記の歴史変化の大きさに比べれば極めて些細なものに過ぎない。主たる素材は鬱陵島である。鬱陵島は江戸時代日本では竹島（磯竹島）と呼ばれ、鳥取藩領米子の町人大谷・村川両家が幕府から渡海免許を得て漁労を行っていたが、元禄九年（一六九六）に渡海禁令が出されて渡航が断絶した。幕末維新のころには鬱陵島は松島と呼ばれることが多くなり、明治初年には何人もの日本人から松島開拓願が出された。鬱陵島は十五世紀前半に朝鮮王朝政府によって空島化が進められていたが、一八八二年には鬱陵島開拓令が出されて朝鮮領としての実態を備えるようになっていった。そうした事情を踏まえて日本政府は日本人の鬱陵島渡航禁止を命じる一方で、不法渡航は後を絶たなかった。

鬱陵島はこれまで竹島問題に従属させて語られることが多かった。本稿では、竹島問題からやや離れながら鬱陵島を取り巻く幕末維新の状況について論じ、そのことを介して日韓関係における近世から近代への移行のありようを見直してみたい。

一 ロシアの南下とは何か

鎖国日本の開国への道筋は、十八世紀末のロシアによる通商要求に始まる。寛政五年（一七九三）ラクスマンの根室来航、文化二年（一八〇五）レザノフの長崎来航である。次に示す【史料一】はレザノフに与えた申渡書であり、日本商船の海外渡航禁止と外国商船

の日本渡来の制限が㉔に述べられ、現状では対外関係を結んだ国々は中国（清）・朝鮮・琉球・オランダに限られていることが㉕に述べられる。そして、㉖では、ロシアとはこれまでに対外関係を結んだことのないこと、ロシアが日本に通商を求める意図のあることも承知するが、それを認められないことには議論の余地もない、とする。それは、隣国との友好関係の大切さを知らないからなのではなく、ロシアとは（隣国ではあっても）風土や事情が異なるからこと新たに対外関係を結べないのだと述べる（㉗）。互市すなわち両国間での貿易は、意味あるように見えながら「海外の無用なもの」と「国内の有用なもの」とを交換するようなものであって、日本からすれば決して良いものではない（㉘）。そうした互市交易を行わずにただ「信」を通じるだけということにして新たに「好（よしみ）」を結ぶというのは、わが国の禁をなおざりにすることであって、ありえない（㉙）。したがって二度と来ることのないように、と申し渡したのである。

〔史料一〕（1）

申渡

㉔我国昔より海外に通問する諸国不少といへとも、事便宜にあらさるか故に、嚴禁を設く、我国の商戸外国に往事をとゞめ、外国の賈船もまたもやすく我国に来る事を許さず、強て来る海舶ありといへとも、固く退けていれず、㉕唯唐山、朝鮮、琉球、紅毛の往來することは、互市の利を必とするにあらず、來ることの久しき素より其謂れあるを以なり、㉖其国の如きは、昔よりいまた曾て信を通せし事なし、計らざるに、前年我国漂流の人をいさなひて、松前に來りて通商を乞ふ、今又長崎に到り好みを通し、交易を開かん由を計る、既に其事再におよんて、深く我国に望む所あるも又切なるをしれり、然りといへとも望み乞所の通信商の事は、重く爰に議すへからさるもの也、我国海外の諸国と通問せざること既に久し、㉗隣誼を外国に修むる事をしらざるにあらず、其風土異にして、事情におけるもまた懽心を結ぶにたらず、徒に行李を煩らはしむる故を以て絶て通せず、是我国歴世封疆を守るの常法なり、争か其国一价の故を以て、朝廷歴世の法を變すへけんや、礼は往來を尚ふ、今其国之礼物を請て答へすんは、礼を知らざるの国ならん、答へんとすれば、海外万里何れの国か然るへからさるむ、容ざるの勝れるにしかす、㉘互市の如きは、其国の有所を以て我無所に更へ、各其理あるに似たりといへとも、通して是れを論すれば、海外無価の物を得て、我国有用の貨を失はん、要するに国計の善なるものにあらず、況やまた輕剽の民奸猾の商物を競ひ、価を争ひ唯利是を謀て、やゞもすれば風を壊り俗を乱る、我が民を養ふに害ありて、深くとらさる所なり、㉙互市交易の事なくして、唯信を通し新に好を結ぶ、素よりまた我国の禁ゆるかせになしかたし、爰を以て通することをせず、朝廷の意かくの如し、再來る事を費すことなかれ、

やがて半世紀の後にアメリカからペリーが日本へやってきたときに、ペリーは幕府がレザノフに与えた申渡書〔史料一〕をあらかじめ入手して参考にしていたようであり、ペリー来航記に収められた〔史料一〕のうち傍線㉔部分は以下のように訳されている。

〔史料二〕（2）

It is long since we discontinued all relations with foreigners generally. Although we desire to live in peace with all neighboring States, the difference between them and us, in

manners and character, forbids centuries treaties of alliance. Your voyages and your labors are, therefore useless.”

いま注目したいのは〔史料二〕波線部分であり、これは〔史料一〕傍線④のうち「隣誼を外国に修むる事をしらするにあらず」に該当する。「隣誼」の「隣」は文字通り「隣りあった」の意（neighboring）として理解されている。ペリーもまた江戸幕府との交渉に際してアメリカ合衆国が太平洋を挟んだ隣国であることを強調しているけれど、ロシアの登場は、それよりも遙かに近接した文字通りの「隣国」の新たな出現であった。

さて、次に掲げる史料は、そこに書かれた史実に傍証が得られないものの、十九世紀初めの対馬藩をめぐる国際環境のありようを示唆している点で興味深いものである。

〔史料三〕（3）

○享和三癸亥年 宗対馬守御達

一此度モ ス コ ビ ア 莫斯奇未亜大王朝鮮国を相隨可申者、度々軍使遣シ候得共、朝鮮王属シ不申候付、從莫斯奇未亜大軍を發シ、大將其達、副將シンランコン 親蘭乾江三百万程之軍勢を差添江、朝鮮国江差渡り候、大軍故朝鮮王難防キ候二付、大清国江加勢を乞候由、此節 カンキヤヲ感 鏡 ・コウケン江原之兩道を攻破り、国王城を水攻ニ可致由、八方江土手を築キ大河を碩入候由、未日本江逃渡り可申哉と對州其外近辺騒動以外ニ御座候、猶亦莫斯奇未亜惣大將者ハコロと申者之由、エツコク越谷と申所江致出張、大城を築キ、其所江十万余之人数二三里ニ満テ、数万人後詰と相見候、其勢ひ盛ニ御座候、且蝦夷之通船も有之由風聞御座候、猶亦追々遣見之者共訴出候趣可申上候、以上

享和三年亥八月 宗対馬守

松平越中守様

差出の宗対馬守は対馬藩主宗義功、宛先の松平越中守は松平定信を指す。定信は寛政五年（一七九三）に老中を退任しているが、その後も幕政に影響力を及ぼし続けていた。右文書が提出されたという享和三年（一八〇三）八月は、寛政五年（一七九三）のラクスマン根室来航と文化二年（一八〇五）レザノフ長崎来航とに挟まれた時期にあたる。莫斯奇未亜（モスコビア）は、この文書が書かれたであろう頃にはロシアの意で用いられていたであろう（4）。そして右史料には、ロシアが朝鮮を従えるために大軍を派遣し、朝鮮は清朝に援軍を依頼したことが述べられる。ロシア軍は朝鮮半島北部（咸鏡道・江原道）を攻略し、朝鮮国王の城を水攻めにしようと試みた。それで朝鮮国王が日本へ逃げてくるのでは無いかと対馬やその周辺では騒動になっているともいう。ロシア軍は後方にも十万余の支援軍を待機させていることや、蝦夷地への通船もありうることが風聞として伝えられる。

こうした史実を裏付ける事実は得られないので、書かれた内容をそのまま鵜呑みにするわけにはいかない。仮に誰かの創作だとした場合、天保十四年（一八四三）ないしは文久三年（一八六三）以前にはそうした創作がなされており、江戸周辺では流布していたことが推定できる（5）。そして、くだんの創作者は以下のような知識を前提にして、こうした創作を行ったに違いない。つまり、十九世紀初めにおいては、朝鮮情報が対馬藩の手で幕府中央に伝えられるだけでなく、朝鮮を介してのロシア情報もまた同様にして対馬藩の手で幕府中央にもたらされた、ということである。十九世紀の対馬藩は、朝鮮との仲介者に留まらず、ロシア情報の提供者としても幕府から期待されていたということである。

〔史料四〕 (6)

山崎初右衛門

右者、先般大森繁右衛門出府被仰付候御用至而重御場二而、御用中と申御国体彼此不易為何御尋出可申哉も可量様も無之儀、然者①朝鮮絵図等若御覽之儀をも可被仰出も難測、依之右絵図繁右衛門持越候処、御国之御地形二付而ハ外国方角近キ御国藩屏之御地位之訳も不安様二相聞可申処、②初右衛門儀兼而心掛宜、地

(球)

求

分度之図等をも委令吟味居候を繁右衛門へ指教候を、繁右衛門儀右初右衛門ち習ひ候而凡之一通り相分れ、則③四半之図初右衛門へ申達相調候を持越居候処、果④朝鮮絵図之儀御尋被成、則夫々被差上候二付而も、右地

(球)

求

四半之図を以方角凡之里数をも御覽二入、御国之儀外国近キ大切之御場と申所不求して申上候二至、是偏二初右衛門心掛宜格別之御用二立候段、御国内第一之御道具を被得候事二而、格別之儀候、仍而御称美被仰付候、此旨可被申渡候、以上

〔寛政六年〕五月十四日 年寄中

与頭衆中-

対州易地聘礼の準備過程にあたる寛政六年（一七九四）、家老大森繁右衛門が江戸へ出て幕閣に事情説明をすることとなった。その折りに、ひょっとして朝鮮絵図を見せるように求めがあるかもしれない（①）。藩士山崎初右衛門はかねてより「地球分度之図」について見識を深めており（②）、大森繁右衛門は初右衛門から助力を得て、「四半之図」を江戸へ持参していた（③）。江戸では予想通り幕閣から朝鮮絵図についての質問があり、朝鮮絵図等を提示しつつ、同時に「地球四半之図」によって対馬から朝鮮への方角や距離なども示せた。そのことによって「対馬藩は外国に近い重要な位置にある」ことを特に力説するまでもなく（その図を見せることで）自然と幕閣を納得させられた（④）、というのである。

ここでいう「地球分度之図」「地球四半之図」とは、おそらくは二つの大きな円で地球全体を描いた世界図をもとにして、日本と朝鮮半島および近隣の大陸を抽出して描いた部分図を意味するだろう。日朝関係史における対馬藩の重要性を理解してもらうのに、日本と朝鮮の両者を含んだ大陸・海洋を地理的範囲として示しながら提示する。そうした必要性が十九世紀のこの時期には求められていたということである。そして提示された「地球四半之図」には清朝中国とともにロシアの領域も含まれたに違いない。

右より少しのち、やはり対州易地聘礼の準備過程にあった文化四年（一八〇七）、江戸幕府の儒官林述斎は対馬藩家老に対して、朝鮮とロシアとの交易の有無、朝鮮西北部（義州）での交易の実態について問いただしているという〔松本智也二〇二三、四七二-四七三頁〕。

ロシアの南下は、江戸幕府にとっては西欧新興国の遠来というよりも、隣接した東アジア世界へ新たな異民族国家が出現したものと感じられたのではなかったか。それだけに脅威は身近に感じられたのである。先に引用した〔史料一〕の波線部には「礼は往来を尚ふ

、今其国之礼物を請て答へすんは、礼を知らさるの国ならん」と述べる部分がある。レザノフの求めに対する諾否を「礼」の観点から説明しようとする部分である。「礼は往来を尚ふ」に言う「往来」とは必ずしも使節の往来に限定する必要は無く、書状と贈答品の往復のことを意味するだろう。たとえば東萊府使や釜山僉使と対馬藩主とのあいだで書契が交わされる折りに常に附属する礼物のやりとりのことを想起すれば良い。レザノフの通商要求に対して、それを既存の東アジア国際秩序における交流の先例（7）に照らして諾否を判断したということである。ここに、朝鮮と日本との仲介者たる役割を果たしてきた対馬藩は、東アジア世界に突如現れた新興国ロシアに関する情報収集をも併せて重要な任務とすることとなったのである。

二 幕末維新时期日本の鬱陵島認識とロシア

ロシア使節プチャーチンが長崎に来航したのは嘉永六年（一八五三）のことであった。露使応接掛に任じられた幕臣筒井政憲は、千島列島の帰属問題を論じる過程で竹島（鬱陵島）の事例を併せ検討している【麓慎一二〇二三、七七―七八頁】。そのなかで筒井は「もともと「竹島」（ウルルン島）が日本領であることは間違いない」「明らかに日本領土であった「竹島」（ウルルン島）を、朝鮮に与えたことから考えれば、日本の領土として必ずしも明確な根拠を示せないウルップ島をロシアに与えても問題はない」と主張したという【麓慎一二〇二三、七八頁】。安政元年（一八五四）にも同様な議論が幕臣たちのなかにあったという【麓慎一二〇二三、七八・七九頁】。

本稿筆者が既に述べた【池内敏二〇一六、七三―七四頁】ところだが、元禄九年（一六九六）正月九日、幕府老中阿部正武は対馬藩家老平田直右衛門を招き、平田に直接以下のように述べた。

【史料五】

竹島はもともと明らかに日本領だというわけでもない。…鳥取藩に尋ねたところ、竹島は因幡・伯耆に属する島というわけでもない。もともと朝鮮領であったものを日本領としたわけでもなく、日本人が住んでいるわけでもない。竹島までの距離は、伯耆から一六〇里程なのに対して朝鮮からは四〇里ほどである。とすれば、竹島とは「朝鮮国の鬱陵島」のことであろうか。こうしたことからすると、日本人が住んでいるか日本のものにした島であれば、今さら返すというわけにもいかないだろうが、そうした証拠も無いのだから、今回の一件は、こちらから敢えて問題としないほうが良いのではないか。

鮑取りに行くだけの無益な島ごときのことで、日本と朝鮮の両国関係がもつれてしまい、ねじれた関係が解けずに凝り固まって、これまで継続してきた友好関係が断絶するのにも良くなかろう。本来は筋の通らないことを御威光や武威でもって相手をねじ伏せるようなやり方でこちらの意見を通そうというのにも要らないことである。

竹島（鬱陵島）の帰属をめぐる日朝間で争われた元禄竹島一件は、こうした幕府老中の判断に従って竹島（鬱陵島）の朝鮮領たることを確認したのである。阿部は対馬藩から - 11 - 交渉経過を聞き、その過程で持ち出された証拠書類を何点か点検しているし、鳥取藩江戸藩邸へも問い合わせを行った。これに対して幕末期の幕府対外政策を担った幕臣たちには、元禄期の幕府意思決定過程における論拠書類等を検討する条件が無かったのだろう。「明らかに日本領土であった「竹島」（ウルルン島）を、朝鮮に与えた」というのは、十九世紀日本の巷間で再々繰り返された俗説である。

ところで、戊辰戦争の終結が見えた明治二年（一八六九）五月、明治政府は今後の朝鮮

外交を中央政府主導下に進めることを対馬藩に伝え、中央政府自らが朝鮮情勢の現況を確認するために調査団を派遣する方針を立てた。調査団の構成が具体化するのは同年九月末からのことであり、同年十一月、外務准大録佐田白茅・外務少録森山茂・外務准少録斎藤栄の三名を調査団員とした。十一月上旬ごろ、この調査団に与えられた調査事項は「朝鮮へ被差渡候者心得方御達ノ案」として十一項目に整理して示された〔沈箕載一九九七〕。調査団は同年十二月六日に東京を発ち、長崎、対馬での滞在を経て、明治三年二月二十二日に釜山倭館へ到着した。調査団は三月下旬には長崎まで戻り、佐田・森山・斎藤の連名で調査報告書「朝鮮国交際始末内探書」を四月に外務省あてに提出した。その内探書の項目部分だけ抜粋して次に掲げておく。

〔史料六〕 (8)

- 一 (1) 慶長元和以来朝鮮国ヨリ信使差越、藩属ノ禮ヲ執来候元由
- 一 (2) 対州ヨリ朝鮮へ差遣シ候使者ノ禮典、朝鮮ヨリ対州へ差渡シ候使者ノ禮典
- 一 (3) 朝鮮国ヨリ勘合印ヲ受候由、右ハ同国制度ニ取入貢ヲ受候取扱ナル哉 - 12 -
- 一 (4) 朝鮮ノ国体、臣禮ヲ受ル国ニ取り、北京ノ正朔ヲ仰クト云ヘトモ、国政ニ至テハ自裁独断ノ権力アル哉
- 一 (5) 皇使被差遣候節、御軍艦首府近海へ被相廻候ニ付良港有無
- 一 (6) 朝鮮国ノ儀、魯西亜ノ毒吻ニ心酔シ、陰ニ保護依頼スル風評、且境略論
- 一 (7) 朝鮮国海陸軍武備ノ虚実、器械ノ精粗
- 一 (8) 内政ノ治否、草梁記聞ノ如クナル哉
- 一 (9) 貿易取開ニ付テハ物品ノ交換、物価ノ低昂、及ヒ貨幣ノ善悪
- 一 (10) 歳遣船向來存止
- 一 (11) 対州ハ両国ノ間ニ价立スル孤島ニテ交際ノ入費并漂民彼我引渡方等、一藩尋常政費外ノ入費
- 一 (12) 朝鮮ハ草梁項ノ外其内地ハ日本人ノ旅行難相成哉
- 一 (13) 竹島松島朝鮮附属ニ相成候始末

右のように「朝鮮国交際始末内探書」は調査結果を十三項目に分けて記載しており、これらのうち第一～十二項の調査結果は、調査団にあらかじめ与えられた「朝鮮へ被差渡候者心得方御達ノ案」十一項目に対応して書かれている。「御達ノ案」第一項目に対する調査結果が、「内探書」第一・第二項目の二つに分けて述べられているために項目数に違いがあるが、その点を除けば各項目の記載順序は「御達ノ案」と「内探書」とで変わらない。そのことを踏まえて、右の「内探書」について本稿で注意しておきたいのは次の二点である。- 13 -

第一は、「御達ノ案」には無かった調査が「内探書」の第十三項目に挙げられていることであり、第二は、「御達ノ案」第五項目（「内探書」の第六項目）として挙げられた「朝鮮に対するロシアの影響の有無」である。

まず前者について。既述のとおり、この調査団は中央政府自らが朝鮮情勢の現況を確認するために派遣されたものであり、「御達ノ案」には中央政府が調査を必要と考えた項目が列挙された。それら列挙されたなかに「竹島・松島」については項目として掲げられてい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内探書」第十三項は次のように記される。

〔史料七〕

- 一 (13) 竹島松島朝鮮附属ニ相成候始末

此儀ハ、松島ハ竹島ノ隣島ニテ、松島ノ儀ニ付是迄掲載セシ書留モ無之、竹島ノ儀ニ付テハ、元禄度後ハ暫クノ間朝鮮ヨリ居留ノ為差遣シ置候処、当時ハ以前ノ如ク無人ト相成、竹木又ハ竹ヨリ太キ葭ヲ産シ、人参等自然ニ生シ、其餘漁産モ相応ニ有之趣相聞ヘ候事、

右史料の竹島・松島の叙述にしたがえば、ここでいう竹島・松島は江戸時代の呼称にしたがっており、竹島は現在の鬱陵島、松島は同じく現在の竹島のことを指している。そして松島については特段の記録（「書留」）の無いこと、竹島については「元禄度」すなわち元禄竹島一件ののちは朝鮮人の居住もあったが、現在では無人状態に戻っていることが述べられる。これら鬱陵島の説明は、その自然状況の説明（大竹、人参、漁獲物）とも併せて事実にもとづく客観的なものであり、先述の幕臣筒井政憲による恣意的な説明とは随分と異なっている。それは、[史料七]の叙述が、佐田調査団が聞き取りを行った釜山倭館の旧対馬藩士たちからの情報によるからであつたろう。情報源が、実際に元禄竹島一件を経験し、関連する史料群を手元に残していた対馬藩の関係者であつたがゆえに、鬱陵島の来歴に関する説明も客観的だったのである（9）。

次に、「御達ノ案」第五項目（「内探書」の第六項目）についてである。次に示す[史料八] Aが「御達ノ案」第五項目、Bが「内探書」の第六項目の、それぞれ全文である。

[史料八] （10）

A 朝鮮国ノ儀、既ニ魯西亜ノ毒吻ニ心酔シ、陰ニ其保護ニ依頼スルトノ風評アリ、真ニ然や否、且魯西亜ト既ニ境壤ヲ接スルニ至レリト、然ラハ定テ境界ノ論等アルヘシ、右事実探索ノ事、

B 朝鮮国ノ儀、既ニ魯西亜ノ毒吻ニ心酔シ、陰ニ其保護ニ依頼スルトノ風評、且境略論此儀、草梁ノ出入等ヲモ聞採リ、訓導面会ノ折モ夫トナク事情相尋候ヘトモ、魯西亜ニ依頼スル事情更ニ不相聞、尤黒龍江ヲ隔北ノ方、方今魯西亜人士宇ヲ開墾スル風聞アレト、朝鮮境鴨緑江迄ハ懸隔ノ場所、境壤未接哉ニ有之、併永ク境壤ヲ安シ候儀ニハ難相成トノ風聞ニ有之候事、

朝鮮がロシアの保護を受けるような親密な関係にあるか否か、朝鮮とロシアが国境を接する状況にあるか否か、この二点が指示された調査内容であつた（A）。これに対して佐田調査団は、倭館に出入りする朝鮮人や東萊府倭学訳官（訓導）を通じて情報入手に努め、一点めについては、現時点の朝鮮はロシアから保護を受けるような関係には無いことを述べる。また二点めについては、黒龍江の北方でロシア人が開墾を行っているものの朝鮮と国境を接してのことではないこと、ただしいつまでも国境を接しないままというわけには行かないだろうことが述べられた（B）。

こうした朝鮮の先にロシアの存在を気にかける関心のありようは、前節で述べた十九世紀初めの幕府中央が寄せた関心の延長線上にあるものと言え、幕府から維新政府に至る日本の中央政権にとってロシアの存在は継続的に気がかりであつたとみえる。そうした関心のありようは、「御達ノ案」として指示された全部で十二の調査項目のほぼすべてが朝鮮にかかわるもので占められたなかで、ただひとつロシアとの関連を問うた項目が交えられたところにも現れている。

ところで、調査団の佐田・森山・斎藤は、連名で調査報告書「朝鮮国交際始末内探書」を外務省に提出するとともに、それぞれが別々に「上書」と題した報告書を提出している。そのうち佐田白茅「上書」は七項目からなる見解を記すものだが、上書を締めくくる第

七項の全文は以下の通りである。

〔史料九〕

○今皇国実患兵之多而不患兵之少、諸方兵士未足、東北之師頗好戰鬪翹足思乱、或恐釀成私闘内乱之憂、幸有朝鮮之挙用之、於斯而洩其兵士鬱勃之氣、則不唯二挙屠朝鮮犬練我兵制、又輝皇威於海外、豈可不神速伐之乎哉、- 16 -

右は、戊辰戦争の余燼消えやらぬ時期に書かれた文章であり、実際に朝鮮へ出かけて行った実態調査を踏まえての感懐でもある。白茅は、維新政府の軍隊が依然として十分な統制が取れず訓練も不足しているという現況を前にして、朝鮮に兵力を向ける機会があれば、それは朝鮮を従えるだけでなく日本の兵力を訓練し、ひいては皇威を海外に示すものとなると主張する。白茅は後に回顧して「征韓論の嚆矢は、此の白茅である」と自負するような人であった(11)。それゆえに佐田調査団の派遣から征韓論を論じるのも研究としては一つの視点ではある。本稿では、佐田調査団の調査項目に鬱陵島とロシアへの着目があった点に留意しながら、征韓論につながる筋道としては別の展開を考えてみたい。

三 視点としてのウラジオストク

(1) 瀬脇壽人と松島

一八六〇年十一月、清朝中国がロシアと結んだ北京条約にもとづいて、ロシアは沿海州を獲得した。ここにロシア極東政策の拠点となるウラジオストクの形成が始められた。こうして沿海州がロシア領になることで、ロシアと朝鮮が国境を接することとなった。朝鮮では一八六〇年代に飢饉が頻発し、ロシア領への越境が増加したという。朝鮮人越境者を使つてのシベリア開発の進展が懸念された〔麓慎一二〇一〇、一三四頁〕から、沿海州とわりわけロシアの拠点となるウラジオストクにおいて極東情勢の収集が求められるようになった。

明治四年(一八七一)、西郷隆盛は、ロシアからサハリンと北海道を守るために薩摩藩出身の桐野利秋を北海道に派遣した〔麓慎一二〇一〇、一二九頁〕。明治六年政変(いわゆる征韓論争)の少し前のことである。この動きを指摘した麓慎一は、「サハリン島と朝鮮半島がロシアの勢力に組み入れられることを回避するために、サハリン島を放棄して朝鮮における日本の影響力を確立しようと、企図したのである」と述べる〔麓慎一二〇一〇、一三一頁〕。ところで、いわゆる征韓論争の過程で台湾出兵、朝鮮派兵および樺太出兵の三者が併行して議論の俎上に載せられていた〔大山樸一九七八〕。明治三年から同六年にかけて樺太でロシアとのトラブルが再三発生するなか「日露の対立の根本解決が求められ、ここに樺太放棄の決定となった」〔大山樸一九七八、十一頁上〕とする。

こうした情勢下、明治八年、ウラジオストクに派遣されて情報収集にしたがったのが瀬脇壽人(手塚律蔵)であった。瀬脇については、言語学者・洋学研究者のあいだでは早くから注目されてきたが〔岩崎克己一九三八〕、日朝関係での注目は、管見の限りでは川上健三による言及が早い。川上は、江戸時代に竹島と呼ばれた鬱陵島がやがて松島と呼ばれるようになったことを示すのに明治九年(一八七六)武藤平学「松島開拓之議」を史料として掲げ、武藤が「在ウラジオストック瀬脇貿易事務官を通じて同島の開拓を願い出た」と指摘する〔川上健三一九六六、三一―三四頁〕。また、崔書勉および具良根は、瀬脇、武藤および金麟昇の三人に言及しながら、彼らがウラジオストクに在住しながら情報探索にあたっていたことを述べる〔崔書勉一九七六、具良根一九九七〕。

ウラジオストクの瀬脇壽人については麓慎一もまた先行研究をもとに活写する〔麓慎一

二〇二三、一四二—一四八頁]。そして瀬脇のウラジオストック滞在に関しては、加藤九祚の翻刻した『烏刺細衣斯杜屈見聞雑誌』[加藤九祚一九七二]を利用するのが簡便では— 18 —ある。これは明治八年四月七日から六月十四日に至るものであり、原史料は外務省外交史料館にある。また、手塚律蔵遺稿「浦塩日記」が『中央公論』一九三八年八月号に掲載されており、明治九年四月二十九日から明治十一年九月二日までの日記が断片的に収められる(12)。他方、明治七(一八七三)年十月から同十三年九月まで外務卿を務めた寺島宗則に宛てた瀬脇書状が十通(13)あり、麓慎一もそのうち三通に言及している。こうした瀬脇壽人に関連する史料をもとにして以下の叙述を進めたい。

さて、明治八年四月、瀬脇壽人は「清国海岸より露国ウウジワストーク、ポセツト辺視察」のために東京を出発し[加藤九祚一九七二、六四頁]、同月二十一日ウラジオストック港口に到着し、翌日上陸した[同前、六八一—六九頁]。四月十六日午後長崎港を出港してウラジオストック港を目指す途中、同十九日の日記に松島を遠望したことを記す。これが瀬脇壽人が松島に言及する最初であり、実見記録の最初でもある。

[史料十]

(四月十九日) 午後第五時過、又甲板に登り回望すれば、左辺に当て稍大なる一島ありける故、此島の名は何島と申にや、何れの国の領地に属するやと尋ねければ、士官答えて、此島の名は松島と称して日本の属島なりと云るゆえ、甚だ恠み居し処へ、仏人も偶来りければ、又尋ねしに、其の人も日本の属島と答へけり。されば我属島なりけりと始めて信じぬ。此島に人家ありやと問へば、人家はあらじと云へり。余双眼鏡を出して照し見たれども、薄暮なれば模糊として見へず。— 19 —

ここで瀬脇が島の名を尋ねた士官は、ウラジオストックへ向かう船ヤポネツに乗り組んだ士官を指すだろうからロシア士官である。二度めに尋ねた相手はフランス人であった。長崎から北上して三日ほどして左手に見える島で「稍大なる一島」とは鬱陵島のほかにはありえない。ロシア人はそれを「松島」と呼び、ロシア人・フランス人いずれもその島を「日本の属島」とした。ロシア人の返答を瀬脇が「甚だ あやし恠み居し」とし、フランス人が同様に述べるのを聞いて初めて「されば我属島なりけり」と言う。瀬脇はこのときまで松島(鬱陵島)の存在を知らなかったということである。のちに瀬脇は「過日長崎より来路の海上に、松島と称する一島あり。日本の属島と聞たれども、怪しければ、ウラジオストックへ来着して地図を繙き之を見れば、我が雲州の北に当る竹島の隣島なり。」と述べている[加藤九祚一九七二、七六頁]。

ところで、これ以前に寺島宗則に宛てた瀬脇書状が二通ある(明治八年一月十五日付と同二十八日付。寺島宗則関係資料集(下巻)100-1と100-2)が、いずれにも松島の名は出てこない。これらでは、ロシアが朝鮮に手を伸ばす懸念やその拠点としてのウラジオストック、そうしたロシアへの対抗措置としての朝鮮対策とウラジオストックへの領事館創設の提案が述べられるばかりである。

四月二十三日、瀬脇壽人はウラジオストックに上陸し、そこで「奥州白川の人、武藤平吉と云ふ者、四、五年前より来住せし由にて、初めて対面せし」[加藤九祚一九七二、七一頁]という。同二十八日、武藤の家の隣人なる亜人コーベルという者が、武藤を介して瀬脇に対し、松島を貸与してほしいと頼みごとをしたという[同前七六頁]。武藤は松島へ実際に渡航した経験もありそうな口ぶりであった(14)。五月十三日、「独逸の加比丹」が

訪ねてきたので、瀬脇はこのドイツ人に朝鮮のことを問い、松島についても問うた。松島は日本・朝鮮のいずれに近いのか、人家はあるか否か、金銀鉱山はあるか否か、である。日記はひきつづきロシアによるサハリン島開発について言及したうえで「我国にても古来附属の松嶋なりとも開き、交易の利を盛にし度事なり」とする〔同前九十頁〕。同十九日には訪ねてきた朝鮮人金麟昇に竹島の位置について「竹嶋距朝鮮幾里程、又距日本幾許。」と筆談で尋ねてもいる(15)〔同前九十七頁〕。

六月七日、瀬脇はウラジオストクを出港して帰国の途に就き、長崎へ向かう。その途上、同九日に松島を眺めた記録がある〔同前一〇八頁〕。この日午前十時頃、南方にひとつの島が見えたので船将に問うと「是こそ日本の松島なり」という。それで、まずは双眼鏡で眺め、次いで近づいて眺めたところ、「巍々峽たる一山脈、南北に貫き、西面と北面には数百の溪谷相連り、大いなる松樹繁茂し、又雑木もあり。山腹に瀑布と覚しき二条の白練の如き物、遙に遠海より見ゆ」という。そして「余船中より眺望するに、鉱山家の所謂、原山あり次山あり、必ず金属を生ずべし」と見た。

『中央公論』誌上の手塚律蔵遺稿「浦塩日記」は抜粋抄録のために松島の名は一切出てこないが、明治十一年四月二十日にウラジオストクに到着して以後の瀬脇について「特に目ぼしいものを日記から拾へば、松島の開拓を盛んに本省へ建議している事と…」〔岩崎克己一九三八、五五頁〕ともいう。既に述べたように、これら記事からすると、瀬脇はウラジオストクへの視察派遣に出るまでは松島の存在を知らず、長崎とウラジオストクを結ぶ船上での実見と船のロシア人士官等からの教示、ウラジオストクでの伝聞情報や地図を－ 21 －見て松島とその価値を知るようになる。略年表に見るように、明治九年にウラジオストク貿易事務館が設置されて瀬脇が初代貿易事務官として赴任する(16)と、児玉貞易、武藤平学、斎藤七郎兵衛らからの松島開拓願いが相次いで出されるようになり、それら開拓願の提出と併行するようなかたちで、寺島宗則あて書状のなかで松島への言及が幾度か繰り返しなされるようになる。

そうした書状としての最初が明治十年五月二十二日付(寺島宗則関係資料集(下巻)100-3)のもので、「(前略)公信ニ申上候通松島一件ニ着手イタシ置申度候、他ヨリ同島ト朝鮮北部ニ垂涎イタシ居候趣、先鞭ヲ着ラレ候テハ千悔モ無益ニ属可申候。」と述べる。同年七月二十六日付では、同年春から松島開拓について瀬脇から建議してきたものの、西南戦争への対処で忙殺されているなか、政府としての決議が延び延びになっていることを述べる(「当春以来松島御開拓之儀建白仕候処、薩一件御多忙中ニ付御決議御延引ニ可有之奉存候」)。そのうえで、松島開拓こそは優先して取り組むべき現今の課題であることを強調する(「此儀、方今之一大急務ニ付、急速御許容御座候様奉懇願候」)。そしてこの書状の末尾は「松島ハ是非開拓被仰付候様致度、国家之御為粉骨尽力可仕候」と結ばれる。

(2) いくつもの松島開拓願

明治九年から同十一年にかけて、松島開拓願が相次いで出されるようになる。

①その嚆矢となるのは明治九年七月付で提出された武藤平学の願書〔川上健三一九六六、三一～三四頁、浦野起央二〇〇七、四四四五～四四四六頁〕である。川上も浦野もこの願書はウラジオストクで提出されたと推測するが、明治十年五月にウラジオストクで提出された武藤平学の二度めの開拓願には「客歳東京ニ於テ建白セシカトモ」とするから、右の願書は東京で提出されたものである。

武藤は願書のなかで「松島ト竹島ハ共ニ日本と朝鮮トノ間ニ在レトモ竹島ハ朝鮮ニ近ク松島ハ日本ニ近シ」と述べるものの、彼の論じる松島は鬱陵島のことである。松島の西北海岸は断崖絶壁なのに対し、南の海浜は山から海へ向けてなだらかであり「山頂ヨリ三四分ノ所ニ其幅数百間ナル瀑水アレハ平地ノ所ニ田畑ヲ設ケ耕作スルニ便ナルヘシ」とするからである。この島について武藤はウラジオストク在住のアメリカ人コーペルから話を聞いたとする。コーペルは言う。松島という日本の属島があるのに日本人は手をつけずに放置しているが、「日本ノ所轄タル島ヲ他国ノ所有トナサハ其国ノ宝ヲ他国ニ授与スルナリ」。松島には鉱山、巨木、漁獲資源があり、自分に貸与してくれば「毎年大利ヲ得ン」という。武藤が松島に近寄って眺めたところ、鉱山の有無は不明だが、森林資源に豊富なことは確かである。「彼島ノ大木を伐リ其良材ヲ今盛大ニ開港スル「ウラジオストック」ニ輸出シ或ハ下ノ関ヘ送りテ売却シ其利益ヲ得ン」。そして本当に鉱山があればそれはそれで良いし、日本の漁民・農民を「植へ開拓」すれば莫大の利益があがるに違いない。とくに日朝修好条規を結んだ以上は朝鮮半島北部の咸鏡道辺でも開港場ができて日本と往来するようになれば、「松島ハ其道路ニシテ要島ナリ」。また船舶で日本海航行中に難風に遭った場合には、「此島ニ碇泊スレハ甚便利ナリ」。ウラジオストク港での輸出入が増大する今、松島に港を開き灯台を設置すれば「各国輸出入ノ航海家モ難風ニ逢ヒ或ハ薪水ニ乏シキ時ハ本港ニ入港スベケレバ…各国航海家ノ安堵ニ帰シ」という。こうして松島は - 23 - 「皇国之裨益ニ成ヘキ島嶼ニシテ却テ南方ナル小笠原島ヨリモ一層専務之地」と武藤は言う。そして何よりもまず松島に灯台を設置することを急ぎ要望する。

②児玉貞易の松島開拓願は明治九年七月十三日付〔浦野起央二〇〇七、四四四四～四四四五頁〕で提出されたもので、右の武藤平学による願書と同月中に出されたものである。ただし、児玉願書中に「瀬脇君ノ露港雑誌、武藤氏ノ同港記聞ヲ閲見シ、且其景況等伝承スル」「即今武藤氏松島ノ建白ヲ熟読スルニ」と述べるから、武藤願書を入手して閲覧し、自らの見解を付け加えたものであろう。その際に児玉も「彼ノ南方ナル小笠原島ノ如キモ既ニ着手ノ期ヲ稍失スルニ似タリ而シテ此島嶼ニ比スレハ松島ハ一層ノ要島」と述べる。児玉願書で述べる開拓内容は、鉱山開発が無いのを除けば武藤と同様であり、武藤と異なるのは「松島着手之階梯見込」として開拓の順序を示したことである。なお、浦野はこの願書が東京で提出されたものと見る。

③同じ明治九年の十二月十九日に千葉県の斎藤七郎兵衛が松島開拓願を出したが、願書提出時の斎藤はウラジオストクで商店を営んでおり、願書の提出先はウラジオストク貿易事務官瀬脇壽人であった（17）。斎藤の願書は、まずウラジオストクでの商業の急激な発達状況を述べ、「魯国商人ハ勿論各国商人共追日開店打続、人家毎年式百軒或ハ三百軒宛相増候故、近林之木立伐尽シ…大材ハ本国長崎又ハ数十里相隔居候蒙古地方ヨリ運送仕候得ハ格外高直」という事情から説き起こす。そこで「マ マ

当潮港

并ニ支那上海等へ右伐木積送売捌キ申度」とする。そして松島は「魯朝両国之近海ニ有之、且各国着目仕居候様子ニ御座候得ハ、彼等方ニテ着手不致内、開島被仰付候様仕度」という。 - 24 -

④明治十年五月六日、武藤平学により提出された二度めの開拓願は、最初の開拓願を踏まえながら、新たに朝鮮人ら及びフランス人ヨーギーへの聞き取りを行って松島開拓の必要性を補強したものである。その際に「客歳四月中、露国船彼島ノ周囲ヲ測量セシ由ナレハ

、第一露国ニテ此島ヲ着目シ開ントスル意ナルヘシ」とも述べ、日本が松島開拓をせずに放置して「外人ヨリ着手セラル、時ニ当テハ臍ヲ噬ムトモ及フマシ」と警鐘を鳴らす。「外人ノ着手セサルノ前ニ、漁夫或ハ樵夫又ハ懲役人杯ヲ遣リ開墾シテ皇国ノ属島タル事ヲ著シク各国ニ輝カ」す必要があると述べる。差出名が露領浦潮港在留武藤平学となっているので、ウラジオストクで提出されたはずである。

⑤明治十一年八月十五日付で、長崎県下村輪八郎・千葉県下斎藤七郎兵衛の連名で提出された松島開拓願は、下村が長崎を發ってウラジオストク港をめざす途上で眺めた松島が「巨木繁茂シ和船ノ碇泊可致小港モ相見、且漁獵之益モ可有之」と思われたのが契機となった。宛先は貿易事務官瀬脇壽人となっており、このころ瀬脇はウラジオストクにいたことは明か【岩崎克己一九三八】なので、願書はウラジオストクで提出されたものである。

以上、五点の松島開拓願を概観した。願書の提出場所は東京（①②）とウラジオストク（③④⑤）のふたつに別れるが、内容を見ればすべてウラジオストクとのかかわりで作成されたものばかりである。ここに開拓対象としてあげられた松島は、長崎港とウラジオストク港と結ぶ航路上に見える島としての松島であり、ロシアとの関わりのなかで関心を高めた島という共通性をもつ。松島開拓願を取り上げた先行研究は多くはないが、これら①～⑤の松島開拓願と、同時期に提出された竹島渡海願（明治十年一月、戸田敬義）および外務省記録局長渡邊洪基による考察「松島之議」を同列に扱って論じ、もっぱら同じ鬱陵- 25 - 島を竹島と呼ぶ者もあれば松島と呼ぶ者もあることを指摘するに留まってきた【川上健三一九六六】。右に概観した①～⑤と戸田の竹島渡海願は内容的には同列に論じえないものであり、渡邊洪基の論述は開拓願ではないから更に同列には扱えない。とりわけ、①～⑤の松島開拓願は近世日朝関係史の延長線上に論じられるものではないことに深く留意する必要があると考えるものである。

おわりに

明治十四年（一八八一）、日本人の鬱陵島渡航が禁止されるも、実質的には日本人の渡航と鬱陵島での活動がなくなることはなかった。同二十九年（一八九六）、ロシアは鬱陵島での木材伐採権を韓国から取得し、同三十二年（一八九九）青木外務大臣は島根・鳥取両県知事あてに両県民の鬱陵島での木材伐採取締りを要請し、韓国政府もまた鬱陵島からの日本人退去を要請した。同三十三年（一九〇〇）年六月、韓国政府は鬱陵島を現地調査し、改めて日本人の退去を要求。しかし同三十五年（一九〇二）三月になると、日本人警官四名が鬱陵島に常駐を開始した。

こうした動向については、【内藤正中二〇〇〇、第四章】が主として山陰地方と鬱陵島との関わりに重点を置きながら叙述をしてきた。たしかに地理的には山陰地方（鳥取県・島根県・山口県）と鬱陵島は近くにあり、江戸時代の竹島（鬱陵島）渡海の歴史を踏まえれば、こうした接近方法こそが正しいありようと思われてきたかもしれない。しかしながら、日朝関係史における近世と近現代の移行期については十九世紀の展開を十分な接合ができずにきたように思う。本稿は、それをロシアの存在を介在させることで克服を試み- 26 - たものである。

注

(1) 『通航一覽』卷二八二・魯西亜国部十（国書刊行会本（1913 年）第七、192 頁）

(2) 『ペリー遠征記』123 頁、序論・第 5 節

(3) 「旧簡聴」卷五所収（愛知県西尾市岩瀬文庫 158-77）。

(4) 本多利明「蝦夷之道知辺」（北海道大学附属図書館）には大黒屋光太夫「莫斯科未亜寄語」が付されており、ここにいう莫斯科未亜寄は恐らくロシアのこととして良い。また、石原喜兵衛「太平莫斯科未亜敗北記」（文化四年、北海道大学附属図書館）の主たる内容は文化丁卯事件（文化四年露寇事件）であり、そうである以上は書名に見える莫斯科未亜もまたロシアのことである。

(5) 【史料三】の収載された「旧簡聴」は、『国書総目録』の限りでは岩瀬文庫所蔵のものしかない。岩瀬文庫所蔵目録の解題によれば、「旧簡聴」は全十巻からなる自筆稿本で、編者は東都本街歌仙酒肆美舍倉八代目ヲサ丸（千金舎ヲサ丸）。天保十四年（一八四三）の自序を付すという。その内容は江戸で作成された雑記随筆であり、世上に流布した事件や古書・古記録の写しなど内容は多岐にわたるという。収録記事の下限は文久三年（一八六三）八月で、これは著者が書き継いだものと推測されている。

(6) 対馬藩宗家史料「寛政五年ら 御内密御内用往復書状控」記録類／朝鮮関係／M5（対馬歴史研究センター）

(7) 鹿児島大学附属図書館玉里文庫のなかに「俄羅斯海寇事略」全五冊があり、その第- 27 - 五冊附録のなかに「寛政 4 年魯西亜信使始末」なる項目名を付してラクスマン来航時の関連史料が収載される。このときのロシア使節を「信使」と呼ぶ事例をほかに知らないが、そう呼ぶことのありえたことがここに示されている。「信使」もまた東アジア国際秩序のなかで往来した外交使節の謂いである。なお、玉里文庫は島津久光に始まる玉里島津家による収集史料群で、とりわけ久光による史料収集が精力的になされたことが同文庫解題より知られる。

(8) 『朝鮮外交事務書』巻四、日本外務省

(9) 同様に、明治九年に島根県が明治政府中央に提出した「日本海内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同」における「竹島外一島」の叙述が極めて客観的で正確なのは、同伺書に収められた十一の史料群が、元禄竹島一件と極めて緊密な関連を有した旧鳥取藩に由来すると思われるからである。こちらの場合も、現実の政治折衝に立ち会った人びとの手元に伝来した史料であるがゆえにそうした客観性が担保されたのである。筒井のような幕臣レベルでは、百年以上も前に起きた元禄竹島一件に関連する諸史料をつぶさに点検しうる立場には無かったのだろう。

(10) Aは『朝鮮外交事務書』巻三、Bは同巻四。

(11) 佐田白茅【一九〇三】の緒言で、門人伊藤明が「明治初年に征韓論の起つたのは、先生の首唱なりと伝承せり」と水を向けるのに対して「如何にも御尋問の通り、征韓論の嚆矢は、此の白茅である」と述べる。

(12) ほかに『烏刺細衣斯杜屈見聞雑誌』と同名で、明治八年十月十六日から明治九年一月四日に及ぶ内容の日記がある（国立公文書館所蔵）が、これは冒頭に筆者武藤平学、- 28 - 校正者瀬脇壽人と明記される。内容からも日記の記主は瀬脇ではあり得ず、記主と登場人物との人間関連から武藤平学の日記と判断できる。

(13) 寺島宗則研究会編『寺島宗則関係資料集（下）』一九八七年、示人社

(14) 瀬脇の日記四月二十八日条のうち関連部分は以下の通り【加藤九祚一九七二、七六頁】。

亜人コーベルと云る者、今現にウラジワストークに來住して、武藤が寓居の隣家に臣店を開き居住せり。余等が本地に參着せしを聞き、武藤に謂て曰く、今回日本より当地に領事

官の参りし由、請ふ足下より領事に願ふて、我には彼の松島を五年の間貸し給ふべく周旋せられよ、運上は出さんと武藤へ頼みしゆえ、武藤彼の島より金銀の類にても産するやと尋ねければ、笑て答へず。彼は又曰く、若貸給はざれば茲に一策あり、我嘗て彼の島の周囲を回り、港なども見定め置しに、無人島なれば竊に行て居住せんと、戯語を交へ云し由なり。

(15) 金麟昇は、竹島は江原道三陟府に属し、周回は千里で、土地は肥沃で物産豊かであること、国から渡航禁止の島とされたため人が居住しないこと等を述べる。

(16) 三条実美太政大臣あて寺島宗則外務卿上申書（明治九年二月十九日付）でウラジオストクに貿易事務館設置の必要性を上申し、書面の末尾に同二十八日付で「伺之趣聞届候事」とする判断が示される。寺島上申書には貿易事務館設置の必要性を傍証するため甲乙二通の添付書類があり、そのうちの一通は、瀬脇壽人あて武藤平学書状（明治九年一月十九日付）である。それは「長崎県商原田茂吉郎・有田猪之助兩人「ウラジワストーク」ニ於テ懇願致候 ママ

赴- 29 -

左二記」とする表題を付したものである（「自明治九年二月 露国浦潮港へ貿易事務官トシテ瀬脇壽人赴任ノ件」）

(17) なお、斎藤七郎兵衛と瀬脇壽人は在ウラジオストクの商人と貿易事務官という公的関係だけでなく、瀬脇が佐倉藩にかくまわれていたときからの旧知の間柄であった。「斎藤七郎兵衛と云ふ人は佐倉の商家の出身で、壽人の佐倉潜伏時代から懇意にしてゐた人であります。此の人は一儲けやる積りで壽人に随つてウラジオへ来たのであります」〔岩崎克己一九三八、五四頁〕。長州藩に生まれて洋学に秀でた手塚律蔵は、文久二年（一八六二）に江戸で尊攘派の襲撃を受け、その後は佐倉に潜伏し、瀬脇壽人と名を改めた。それに関連しては、〔岩崎克己一九三八〕のほかに〔小川亜弥子二〇〇九〕。

参考文献

池内敏 [二〇一六] 『竹島 もうひとつの日韓関係史』中公新書七三-七四頁

岩崎克己 [一九三八] 「手塚律蔵と瀬脇壽人」温知会講演速記録第五八輯

大山梓 [一九七八] 「征韓論争と樺太問題」『軍事史学』十四（一）

小川亜弥子 [二〇〇九] 「佐倉出ノ人」手塚律蔵と洋学『佐倉市史研究』二二

加藤九祚 [一九七二] 「浦塩物語（一）」『ユーラシア』四

川上健三 [一九六六] 『竹島の歴史地理学的研究』古今書院

具良根 [一九九七] 「日本外務省七等出仕瀬脇壽人と外国人顧問金麟昇」『韓日関係史研究』七- 30 -

佐田白茅 [一九〇三] 『征韓論の旧夢談』非売品

沈箕載 [一九九七] 『幕末維新日朝外交史の研究』臨川書店

崔書勉 [一九七六] 「他意開国「江華悲劇の教訓」」『韓』第五卷五・六合併号

内藤正中 [二〇〇〇] 『竹島（鬱陵島）をめぐる日朝関係史』多賀出版

麓慎一 [二〇一〇] 「幕末・維新时期における帝政ロシアと日本」、明治維新学会編『講座明治維新』第一巻、有志舎

—— [二〇二三] 『一九世紀後半における国際関係の変容と国境の形成』山川出版社

松本智也 [二〇二三] 『〈文事〉をめぐる日朝関係史 近世後期の通信使外交と対馬藩』

春風社

* 関連する略年表

明治 8 年 (1875)

1 月 15 日 寺島宗則あて瀬脇壽人書状 (『寺島宗則関係資料集 (下)』100-1)

1 月 28 日 同上 (同上 100-2)

4 月 7 日 出航。

4 月 19 日 船上から松島を遠望する。

4 月 23 日 ウラジオストクで武藤平学と出会う。

4 月 28 日 武藤と松島について話す。

5 月 13 日 ドイツ人と松島について話す。- 31 -

5 月 19 日 金麟昇と松島について話す。

6 月 9 日 船上から松島を遠望する。

明治 9 年

6 月 12 日 ウラジオストクに貿易事務館設置。初代貿易事務官に瀬脇壽人。

7 月 武藤平学、松島開拓願。

7 月 13 日 児玉貞易、同上。

* 8 月 渡邊洪基「松島之議」

12 月 19 日 斎藤七郎兵衛、松島開拓願。

* 明治 9 年 ~ 10 年 3 月、竹島外一島地籍編纂方伺。

明治 10 年

1 月 戸田敬義、竹島渡海願。

5 月 22 日 寺島宗則あて瀬脇壽人書状 (『寺島宗則関係資料集 (下)』100-3)

5 月 26 日 武藤平学、松島開拓願。

7 月 2 日 瀬脇壽人、松島開拓の伺。

7 月 26 日 寺島宗則あて瀬脇壽人書状 (『寺島宗則関係資料集 (下)』100-4)

明治 11 年

5 月 25 日 寺島宗則あて瀬脇壽人書状 (『寺島宗則関係資料集 (下)』100-5) - 32 -

7 月 31 日 同上 100-6

8 月 15 日 斎藤七郎兵衛、松島開拓願。

제2발표

초량왜관 선창지 유적 발굴성과에 대하여

발표 : 片山まひ(도쿄예술대)

토론 : 정성일(광주여대)

【제2주제】

초량왜관 선창지 유적 발굴성과에 대하여

片山まび(도쿄예술대)

발표자의 요청으로 미공개

[토론문]

【제3주제】

임진전쟁 전후 조선의 關白과 日本國王인식

발표 : 임현채(서강대)

토론 : 조인희(한국국학진흥원)

【제3주제】

임진전쟁 전후 조선의 關白과 日本國王

서강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연구원

임현채

목차

I. 머리말

II. 關白 히데요시의 등장과 임진전쟁의 경과

III. 조선의 에도 막부 關白와 日本國王 호칭

IV. 맺음말

I. 머리말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 1536~1598]의 침략 전쟁이 실패로 끝난 이후, 에도 막부는 조선 측에 사신 파견을 꾸준히 요청하였다. 조선도 전후처리를 위해 회답겸쇄환사를 세 차례 파견한 후(1607, 1617, 1624), 1811년까지 꾸준히 통신사를 파견해 이에 답하였다. 통신사가 오가던 조선 후기-에도 막부는 260년 가까이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였는데, 이에 대해 현재는 善隣友好에 입각한 관계라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모습은 히데요시의 침략과도 근대 식민지의 기억과도 다른 평화로운 시기였다.

임진전쟁을 계기로 조선에서는 일본의 최고집정자를 關白¹⁾이라 부르기 시작하였다. 조선 전기에 일본의 최고 권력자를 日本國王이라 불렀던 모습과는 달라진 것이다. 본래 일본에서 간파쿠[関白]는 8세기 후지와라 북가가 천황의 섭정직으로 들어서면서 중요한 관직으로 부각되었으나, 무가 정권이 시작되면서 천황과 함께 실질 정치 무대에서는 물러나고 말았다. 그런데 히데요시는 미나모토씨[겐지, 源氏]를 받지 못하였기에 막부를 열지 못하였으며, 그 대신 후지와라씨와 도요토미씨를 천황으로부터 하사받았다.²⁾ 히데요시는 이후 후지와라씨의 선례를 따라 간파쿠에 취임하여 일본의 실권을 장악해 나갔으며, 임진전쟁 기간 중에는 간파쿠를 조카 히데쓰구[秀次, 1568~1595]에게 물려주고 다이코[太閤]에 올라 전쟁을 진두지휘했다. 임진전쟁 후, 세키가하라 전투(1600)에서 승리하여 일본의 주도권을 쥔 도쿠가와 이에야스[徳川家康, 1543~1616]는 다시 막부를 열고 세이이다이쇼군[征夷大將軍]에 취임하였으며(1603), 그 과정에서 간파쿠를 다시 구 후지와라 셋칸가에 돌려주었다.

조선의 관백 인식에 대해서는 김문식과 손승철이 일부 다루었다. 김문식의 연구에 따르면, 조선은 천황과 관백을 군신관계로 파악하면서 관백을 일본국왕으로 규정하였다. 그러나 조선에서는 천황의 신하임을 고수하려는 관백을 실제로 어떻게 대우할 것인가에 따른 문제와 불만이 지속적으로 불거져 나왔다.³⁾ 손승철은 통신사의 일본 인식 중에서도 특히 천황 인식에 대

1) 본고에서 일본의 실제 관직명을 지칭할 경우는 간파쿠[関白], 조선에서 칭하는 명칭의 경우는 관백(關白)으로 표기를 달리하고자 한다.

2) 박수철, 『오다·도요토미 정권의 사사 지배와 천황』,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492~493쪽.

해 다루었다. 조선 전기에는 천황의 존재에 대해 큰 관심이 없었으나, 임란을 계기로 천황과 관백의 관계에 대한 관심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통신사행을 포함하여, 조선은 대체로 천황을 실권이 없는 자, 관백을 최고 통치자로 바라보고 있었다. 반면 李景稷(1577~1640, 1617년 回答兼刷還使 종사관) 등은 천황이 관백의 위에 있음에도 실권이 없음을 의아하게 바라보았다. 조선에서는 권력이 없는 천황에 대해 무능하거나 방탕함을 강조하는 견해가 우세한 한편, 李瀼(1681~1763)·安鼎福(1712~1791) 등은 천황이 복권할 가능성을 점치고 있었다.⁴⁾

김문식·손승철 등의 연구는 관백이 히데요시에서 출발한 표현임에도, 철저히 에도 막부의 최고 권력자인 세이이다이쇼군[征夷大將軍]이 곧 관백이라는 조선 측 사료 이해에 머물러 있다. 이 과정에서 명실상부한 간파쿠였던 히데요시의 존재는 탈각되었다. 한편 미야케 히데토시[三宅英利]나 하우봉은 조선이 지칭하는 관백과 일본의 간파쿠가 다른 존재임을 명시하였다.⁵⁾ 또 민덕기는 조선에서 관백이라는 표현이 히데요시를 칭한 이후 조선 측의 통칭으로 변화했음을 지적하였다.⁶⁾ 그럼에도 히데요시 이후 관백이라는 표현이 무엇을 대체하였는지, 어떻게 관백이라는 표현이 정착했는지, 실제로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현 단계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앞서 간단히 언급했지만, 關白에 해당하는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은 그 이전까지 조선에서 日本國王이라 불렸다. 막부 쇼군들은 아시카가 요시미쓰[足利義滿, 1358~1408] 정도를 제외하면, 국왕호 사용을 기피하여 국서에서 日本國源某로 자칭하였다.⁷⁾ 하지만 조선에서는 復書에 일본 대표를 日本國王이라 적고,⁸⁾ 『해동제국기』에서도 쇼군들을 일본국왕으로 지칭하여 인식하였다.⁹⁾ 그런데 임진전쟁을 계기로 일본국왕이라는 명칭이 갑자기 관백으로 변화하였으며, 일본의 실상과 관계없이 조선은 관백 호칭을 고수하였다. 그러므로 조선의 관백 명칭 활용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조선의 관백이라는 용어가 어떠한 변천 과정을 거쳐 인식되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2장에서는 우선 임진전쟁기 히데요시가 간파쿠-다이코라 자인한 시기 조선의 관백 표현 방식을 살펴볼 것이다. 임진전쟁기(1592~1598)에 일본의 간파쿠는 히데요시의 조카 히데쓰구(r. 1591~1594)였으며, 히데쓰구 사건(1594) 이후 히데요시가 사망할 때까지 간파쿠는 공석이였다. 그럼에도 조선에서는 이 시기 관백이라는 용어가 곧잘 보이는데, 그 양상을 살펴볼 것이다. 3장에서는 전쟁 이후 에도 막부가 세워진 시기 조선의 ‘관백’ 활용을 살펴볼 것이다. 일본사를 살펴보면 알 수 있듯이, 일본에서는 세키가하라 전투 이후 간파쿠를 다시 구 후지와라 셋칸가에 돌려주고 이에야스는 막부의 쇼군에 취임하였다. 이 시기 여전히 조선은 관백이라는 표현을 즐겨 사용하였는데, 이 모습을 조금 더 깊이 추적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본고에서는 조선의 관백이 갖고 있는 특수한 의미를 밝혀내고자 한다.

II. 關白 히데요시의 등장과 임진전쟁의 경과

3) 김문식, 「일본 및 서양에 대한 인식」, 『조선후기 지식인의 대외인식』, 새문사, 2009.

4) 孫承詒, 「조선시대 日本天皇觀의 유형적 고찰」, 『近世朝鮮의 韓日關係研究』, 國學資料院, 1999.

5) 三宅英利, 손승철 역, 『근세 한일관계사 연구』, 1991, 247쪽; 하우봉, 『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인식』, 해안, 2006, 180~181쪽의 주 45) 및 주 48).

6) 민덕기,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1606년 조선에 보낸 ‘국서’에 대한 위조설 검토: 요네타니세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52, 2015, 109~110쪽.

7) 『文宗實錄』卷1, 卽位年(1450) 3月 15日, “日本國源義成”.

8) 『文宗實錄』卷1, 卽位年(1450) 5月 6日, “朝鮮國孤哀子李, 諱奉復日本國王.”

9) 申叔舟, 『海東諸國紀』日本國紀, 「國王代序」.

조선은 개국 이래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여 왔으나, 삼포왜란(1510)을 계기로 통신사 파견을 중단하였다. 그로부터 약 80년이 지나, 히데요시의 서한이 조선에 당도하였다. 여기서 히데요시는 스스로를 日本國關白秀吉로 칭했다. 히데요시는 실제로 막부를 열지 못하였으며, 武家 최고위직인 세이이다이쇼군[征夷大將軍]에 오르지는 못했다. 대신 그는 일본의 최고 권력자가 되는 방법으로 公家에 들어가는 방법을 택했다. 그는 다이쇼다이진[太政大臣]을 거쳐 후지와라씨를 받고 간파쿠[関白]에 취임하였으며, 히데요시는 조선·류큐 등에 보내는 서한에서 자신을 日本國關白秀吉이라 칭하였다.¹⁰⁾

경인통신사 당시 부사였던 金誠一(1538~1593)은 히데요시의 關白이라는 호칭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 이전에 조정은 關白이 곧 日本國王인 줄 알고 국서를 썼다. 『해동제국기』에 의하면, 조선은 무로마치 막부의 쇼군을 곧 日本國王으로 칭하였으며, 일본 측에서 발신인을 日本國源某로 답할 때도 그를 日本國王이라 기록하였다. 그런데 현장에 나아간 통신사는 그제서야 관백이 日本國王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다. 김성일은 허성의 庭下拜론에 반발하며 楯外拜를 주장하였는데,¹¹⁾ 그 근거로 관백은 日本國王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무릇 일본은 어떤 나라냐 하면 아조의 여국이며, 관백이란 무슨 관직이나 하면 위황(=천황)의 대신입니다. 그러므로 일본의 주인은 위황이며, 관백이 아닙니다. 관백된 자는 相君이지, 국왕이 아닙니다. (...) ¹²⁾

그는 같은 기록에서 관백이 감히 왕을 칭하지 못한다는 기록은 『해동제국기』에 실려 있다고 하였다. 또한 지금까지 일본의 영주[殿]들이 조선국왕을 황제폐하라 칭했던 것이 곧 위황과 조선국왕이 대등하다고 알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으며, 관백은 이에 범접하지 못하는 존재라고 인지하였다. 심지어 전 관백으로 다이쇼다이진 노부나가[太政大臣信長]의 名號를 거론하기도 했다.

김성일의 이러한 관백 묘사는, 이미 일본국왕=쇼군을 곧 관백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상황을 보여준다. 실제로 『해동제국기』에 기록된 관백에 대한 정보에 따르면, 관백은 이미 국정에 관여하지 않는 직책으로 밀려난 지 오래였다.¹³⁾ 김성일이 묘사하는 관백은 사실 『해동제국기』의 國王代序에서 기록하는 일본국왕에 대한 묘사와 일치한다. 『해동제국기』에서는 그 나라에서 (국왕은) 감히 칭왕하지 않고, 단지 御所라고 부른다고 기록하였다. 그런데 김성일은 조일관계에서 처음 중요한 직함으로 떠오른 관백을 곧장 일본국왕과 연관지어 살펴보았던 것이다. 그가 노부나가~히데요시 치하 일본을 평씨의 나라[平朝]라고 이해했던 것과 같은 맥락이다.¹⁴⁾ 그 결과, 조선에서 관백은 기존의 日本國王과 동일한 인물을 지칭하면서, 동시에 실제로는 일

10) 『続善隣国宝記』 天正 18年(1590) 2月 28日 琉球国王宛豊臣秀吉書翰, 北島万次 編, 『豊臣秀吉朝鮮侵略関係史料集成 1: 一五八五~一五九二年』, 東京: 平凡社, 2021, 57~58頁; 『江雲隨筆』 天正 18年(1590) 11月 朝鮮国王宛豊臣秀吉返翰, 같은 책, 66~67頁.

11) 조인희,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정명(征明)’에 대한 고찰」, 『한일관계사연구』75, 2022, 89쪽의 표 참조.

12) 金誠一, 『海槎錄』卷3 書簡, 「與許書狀論禮書」, “夫日本者何等國也, 我朝之與國也. 關白者何等官也, 僞皇之大臣也. 然則主日本者, 僞皇也, 非關白也. 爲關白者, 相君也, 非國王也.(...)”

13) 『해동제국기』 일본국기에서는 원 성종 대덕 2년, 고려 충렬왕 24년(1298) 이후 관백과 섭정은 드러나지 않았다. 지금까지 세습해 오고는 있으나, 단지 천황의 家事를 장악할 뿐 국정에 다시 참여하지는 않았다고 기록하였다(申叔舟, 『海東諸國紀』 日本國紀 「天皇代序」, 持明天皇 중).

14) 金誠一, 『鶴峯集』卷2 詩, 「次山前建除體」, “平朝國何許?”

본국왕이 아닌 존재여야 한다는 인식 체계가 형성되었다. 그 과정에서 히데요시가 취한 간파쿠직의 본래 의미는 퇴색되고, 일본국왕이라 여겼던 존재가 사실은 人臣인 관백이라는 정보만이 강조되었다.

이후 관백이라는 호칭은 조선에서 광범위하게 등장하였다. 관백이 가리키는 대상은 대부분 히데요시라는 특정 인물이면서, 그를 기존의 일본국왕과 구별할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었다. 한편 조선에 건너온 일본인들도 관백이라는 명칭을 일반적으로 사용하였다. 기요마사가 서한에서 關白公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¹⁵⁾ 포로로 잡은 일본인들은 간파쿠의 음차 표현인 감박(甘朴)사마 혹은 감박궁(甘朴宮)이라는 명칭을 진술하였다.¹⁶⁾ 임진전쟁 중에 관백이 지칭하는 대상은 사실상 히데요시 한 명이었으므로,¹⁷⁾ 조선과 일본 사이에 관백을 둘러싸고 다른 인물을 연상할 가능성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전쟁이 발발한 후에도 조선의 인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선조 25년(1592)년 10월, 선조는 일본군을 이간책으로 분산시킨다는 啓辭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취하며 일본군에 대한 이해를 피력하였다. 선조는 唐代에 吐蕃과 回鶻이 이방인이었음에도 합심하여 군대를 끌고 왔는데, 일본인은 본래 한 나라의 사람인 데다가 관백이 그들의 주가 되어 전투를 독려하고 주장하였다.¹⁸⁾ 여기서 관백은 실질적으로 일본의 주된 존재로 묘사되었다. 그럼에도 조선에서는 이를 왕으로는 표현하지 않았다. 정보가 어느 정도 쌓인 선조 29년(1596)에도 다이코[太閤]와 간파쿠[關白]에 대한 정보는 정리가 되지만, 정작 관백과 쇼군의 묘사가 등치되는 보고를 확인할 수 있다.¹⁹⁾

관백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하는 문제는 黃廷彧(1532~1607)·黃赫(1551~1612)의 공초 내용에서 다시 부각되었다. 황정옥은 전란 발발 당시 順和君(?~1607)을 따라갔다가, 가토 기요마사[加藤清正, 1562~1611]군에 아들 황혁과 함께 포로로 잡혔다. 이들은 기요마사가 1593년에 철수하면서 조정으로 돌아왔으나, 서장에서 행재소에 臣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賊酋(히데요시)를 關白殿下라 칭하였다고 하여 삼정 추국을 받게 되었다.²⁰⁾ 황정옥은 공초에서 혐의를 부인하였는데,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僞狀에) 관백전하라고 쓴 것은 이유를 알지 못했는데, 지금에 이르러 생각해 보니, 『해동기』에 일본국왕을 일명 관백이라 부른다 하였습니다. 통신사의 문서 내에서도 역시 관백전하라고 다수 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아국의 사람들은 모두 국왕과 관백이 곧 한 사람이면서 두 이름을 가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신이 포로로 잡힌 후에 이르러, 여러 도적들이 관백을 불러 사마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平行長과 清正 등의 여러 적장이 역시 모두 사마라 칭했습니다. 이른바 사마는 아국의 영감 호칭과 같습니다. 이때에서야 비로소 관백이 신하된 자임을 알았으니, 일행이 그를 (전하라고) 칭할 까닭이 전혀 없습니다.²¹⁾

15) 『宣祖實錄』卷31, 25年(1592) 10月 19日.

16) 『宣祖實錄』卷40, 26年(1593) 7月 28日; 29日; 『宣祖實錄』卷57, 27年(1594) 11月 18日; 『宣祖實錄』卷61, 28年(1595) 3月 29日.

17) 임진전쟁 중에 新關白에 대한 언급이 한두 차례 나오기는 하지만(『宣祖實錄』卷58, 27年(1594) 12月 20日), 그조차도 히데요시가 관백직을 (히데쓰구에게) 전위한 것이 아니라 儲君의 자리에 두었다는 정보(『宣祖實錄』卷60, 28年(1595) 12月 10日)와 겹쳐져 큰 파급효과 없이 지나갔다.

18) 『宣祖實錄』卷31, 25年(1592) 10月 14日.

19) 『宣祖實錄』卷82, 29年(1594) 11月 6日.

20) 『宣祖實錄』卷36, 26年(1593) 3月 21日; 『宣祖實錄』卷40, 26年(1593) 7月 13日; 7月 28日; 『宣祖實錄』卷41, 26年(1593) 8月 1日.

21) 『宣祖實錄』卷41, 26年(1593) 8月 2日, “其書關白殿下者, 未知其由. 到今思之, 海東記, 日本國王, 一名關白云. 至於通信使文書內, 亦有多稱關白殿下. 故我國之人, 皆以爲國王關白, 乃是一人而有二名.

황정욱은 우선 『해동기』를 근거로 들어 일본국왕이 관백이라 불린다고 알고 있었다고 발언하였다. 현존하는 조선 전기 기록 중에 일본국왕을 관백이라 부른다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다. 그러나 황정욱은 기존 조선의 『해동기』나 통신사에 근거하여 일본국왕은 곧 관백이었다고 진술하였다. 이 황정욱의 공초 내용은 일본의 역사적 사실보다는 김성일의 『해사록』에 실린 주장과 더 유사하다. 시기상으로는 조금 뒤쪽이지만, 『선조실록』에도 히데요시를 가리켜 다이코덴카[太閤殿下]라고 하는 일본인들의 언급이 있다.²²⁾ 조선에서 관백과 태합이 엄밀히 구별되지 않는 명칭임을 고려하면,²³⁾ 히데요시에게도 전하라는 표현을 쓸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황정욱의 위 발언은 일반적인 조선인들이 관백과 일본국왕을 분리해서 생각하기가 쉽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그러나 황정욱 역시 마지막에는 관백이 국왕이 아니며, 결국 신하된 자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모습은 관백이 일본국왕은 아니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 조선 내부의 판결에 비교적 유리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렇듯 조정은 공식적으로 관백과 일본국왕을 가급적 분리해서 보려 하였으나, 종종 이 둘을 등치하는 듯한 표현이 등장하곤 하였다. 四溟堂 惟政(1544~1610)과 기요마사의 협상 과정에서도 그러한 모습이 드러났다. 유정은 관백을 일본국왕으로, 상관(기요마사)을 신하로 알고 있다고 질문하였는데, 기요마사는 자신이 국왕의 신하지 관백의 신하가 아니라고 답했다.²⁴⁾ 유정은 이 국왕이 기존의 源氏 막부 집권세력과 천황 중 누구를 지칭하는 것인지 판단할 수 없었다고 보고하였다.²⁵⁾ 이렇듯 조선에서도 아직 일본국왕과 관백의 분리가 온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런데 명과 일본의 종전협상이 이루어지면서, 명은 관백 히데요시를 일본국왕으로 봉할 계획을 세웠다. 관백의 봉왕 논의는 선조 27년(1594)부터 『조선왕조실록』에 종종 등장하며, 최종적으로 선조 29년(1596) 9월 히데요시는 日本國王으로 책봉을 받았다. 이후 히데요시는 사은표문에서 스스로를 日本國王臣 豐臣秀吉이라 밝혔으며,²⁶⁾ 간파쿠나 다이코라는 호칭은 쓰지 않았다. 정유재란기 현장에서는 발화자를 막론하고 관백이라는 명칭이 계속해서 등장하였다. 하지만 관백이 곧 일본국왕이라는 사실을 천조국인 명이 인정하였기 때문에, 조선에서도 관백이 일본국왕과 별개의 존재라는 점은 한동안 강조하지 않았다. 책봉을 전후한 시기 조선에서도 봉왕 문제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에 관한 논의가 주를 이룬 것이다.

오히려 조선에서는 일본국왕과 관백이 동일한 존재라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기까지 하였다. 선조 31년(1598) 9월, 명 贊畫主事 丁應泰(?~?)는 經略 楊鎬(?~1629)를 고발하면서 조선의 죄상까지 열거하였다. 정응태는 조선이 관백을 뛰어난 추장이라 여기지 않아 그를 불러들였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그는 조선이 일본의 연호를 크게 쓰고 천조의 연호를 작게 쓴다는 사실을 공격하면서, 조선이 명에 실제로 공순하지 않다고 주장하였다.²⁷⁾ 정응태는 그 근거로 『해

及臣被擄之後，聞諸賊稱號關白爲司馬。如平行長、清正等凡賊將，亦皆稱司馬。所謂司馬，如我國令鑑之。於是，始知關白之爲臣，則一行萬無妄稱之理。”

22) 유키나가의 편지(『宣祖實錄』卷45, 26年(1593) 閏11月 4日; 『宣祖實錄』卷50, 27年(1594) 4月 2日), 시게노부의 편지(『宣祖實錄』卷54, 27年(1594) 8月 27日; 『宣祖實錄』卷57, 27年(1594) 11月 8日), 기요마사의 편지(『宣祖實錄』卷84, 30年(1597) 1月 21日; 3月 30日) 등에서 다이코덴카[太閤殿下]라는 표현이 직접 등장한다.

23) 『宣祖實錄』卷82, 29年(1596) 11月 6日.

24) 「甲午四月入清正榮中探偵記」, 『松雲大師奮忠書難錄』, “我等書示曰，我國以關白爲日本國王，而以上官爲臣。今送此國云。然耶。答書示曰，我非關白之臣，乃國王之臣。”

25) 「別告賊情」, 주 24)의 책.

26) 『宣祖實錄』卷83, 29年(1596) 12月 7日.

『동기략』을 들었는데, 조선에서는 이를 『해동제국기』라 판단하고 변무하였다.²⁸⁾ 변무한 내용 중에 관백에 관련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해동기략』에 따르면... 곧 배신 신숙주에 이르러 왜인이 그 나라의 풍속과 세계 및 지도를 기록한 걸 얻어 이윽고 본고를 그대로 두면서 소방이 왜노를 관사로 대우한 사례를 붙여 만든 책을 『해동제국기』라 한 것입니다. (...) 하물며 그 국왕인 관백에 대해서는 모두 (그들의 죽음을 묘사할 때 쓰는 글자로: 발표자) 死를 썼으니, 존봉하는 뜻이 과연 이러하였겠습니까.²⁹⁾

앞서도 설명하였듯이, 『해동제국기』에는 관백과 일본국왕(막부 쇼군)을 철저히 구별하여 별도의 란에 기술하였다.³⁰⁾ 관백은 어디까지나 공가에 속하여 정무를 살피는 존재가 아니고, 일본국왕(쇼군)은 源氏로 막부의 지배자이자 실무자를 가리켰다. 그런데 조선은 명 조정에 올리는 공식 주문에서, 관백을 곧 일본국왕이라고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이는 당시 관백인 히데요시가 일본국왕으로 책봉을 받았다는 사실을 조선이 부인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동시에, 지금까지 조선이 일본국왕과 관백을 분리하려던 노력을 스스로 포기해야만 하는 지점에 놓였음을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III. 조선의 에도 막부 關白 호칭과 日本國王

조선에 본격적으로 히데요시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던 선조 31년(1598) 8월, 조선에는 관백의 죽음이라는 형태로 히데요시의 사망 소식이 알려졌다. 당시 조선에서는 시마즈 가가 관백의 자리를 빼앗으려 철수할 의향이 있다는 소식, 히데요시의 少자가 자리에 올랐다는 정보,³¹⁾ 관백의 사후 이에야스가 대장을 칭하였다는 내용 등이 올라왔다. 遊擊 茅國器(?~?)는 시마즈 요시히사[島津義久, 1533~1611]의 관백 찬탈론을 주장했고, 提督 劉綎(?~1619)은 일본 국중에 이에야스 등 4대신이 있음을 언급하였다. 이 시기 선조는 히데요시의 사후 그 아들이 대를 이었으며, 이에야스가 관백의 임을 섭행한다고 이해하였다.³²⁾

그런데 세키가하라 전투에 대한 소식이 전해지자, 조선에서는 平哥가 쫓겨나고 源哥가 관백이 되었다는 소식이 올라왔다.³³⁾ 이때부터 조선에서는 일본의 국사를 다시 關白이 집행한다는 정보가 올라왔다. 다만 이는 사실과는 다른 정보였다. 세키가하라 전투의 결과, 이에야스는 간파쿠직을 히데요시 전의 5摂관가에 돌려주었으며, 자신은 1603년 막부를 세워 세이이다이쇼군에 취임하였다. 이를 고려해 보면, 이미 관백이라는 직함은 일본의 최고집정자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변질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간양록』 등 전쟁 후에 편찬된 글을 보아도, 일본의 관백

27) 『宣祖實錄』卷104, 31年(1598) 9月 21日.

28) 변무의 흐름에 대해서는 허지은, 「丁應泰의 ‘조선무고사건’을 통해 본 조·명관계」, 『사학연구』76, 2004를 참조.

29) 『宣祖實錄』卷105, 31年(1598) 10月 21日, “至於海東紀略, 是乃陪臣申叔舟, 得倭人所記其國風俗世係地圖, 遂因其本稿, 附以小邦館待倭奴事例, 作一冊, 名爲海東諸國記. ... 況其國王關白, 皆書死, 尊奉者, 果若是乎?”

30) 申叔舟, 『海東諸國紀』日本國紀, 「國王代序」.

31) 『宣祖實錄』卷104, 31年(1598) 9月 15日.

32) 『宣祖實錄』卷121, 33年(1600) 1月 4日; 2月 24日.

33) 『宣祖實錄』卷134, 34年 (1601) 2月 1日. 조선의 겐페이 대립 이해 문제는 임현채, 「壬辰倭亂期 조선과 일본의 豐臣氏 활용과 그 인식」, 『한일관계사연구』71, 2021을 참조.

은 이미 가마쿠라 막부의 쇼군 미나모토노 요리토모[源頼朝, 1147~1199]로부터 내려온 실권자라는 정보가 퍼져 있었다.³⁴⁾ 반대로 조선에서 일본국왕의 존재는 사라져 버렸다.

그런데 조선은 이에야스와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일본 측이 먼저 강화를 요청하는 서한을 보낸다는 선위치서를 조건으로 하였다. 이때 조선은 일본국왕과 협상하기를 희망하는 태도를 보였다. 이 과정에서 쓰시마 측 대표인 다치바나 도시마사[橘智正, ?~?]와 朴大根(1566~1627)이 문답한 내용 중에서, 日本國王이라는 용어 자체에 대한 논의가 나타나고 있다. 박대근은 도시마사에 따르면 이에야스가 일본국왕이라고 하는데, 정작 일본에서 이에야스를 일본국왕이라고 칭하지 않는 이유를 물었다. 이에 도시마사는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임무가 국왕과 같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비변사는 이에야스가 국왕이라고 하여 조선이 편지를 쓸 수는 없다고 보고하였다.³⁵⁾

이어서, 孫文彥(?~?)은 도시마사와 문답하면서 이에야스의 일본국왕 자칭 서한이 반드시 먼저 나와야 할 것을 강조하였다.

또 이에야스의 글 1건은 더욱이 없어서는 안 된다. 예전에 천조가 히데요시를 일본국왕으로 봉하였는데, 이는 진실로 너희 나라의 막대한 경사다. 그런데 책사를 멀리하고 다시 군병을 일으켰으니, 일본의 죄는 천지간에 용납할 수 없다. 오늘날 이에야스가 비록 히데요시의 행위와 반대된다 하더라도, 아국이 어찌 감히 천조를 거슬러 독단으로 국왕의 호를 쓰겠는가? 이것이 이에야스의 글이 없어서는 안 되는 한 가지다.³⁶⁾

민덕기는 이에 대해, 조선이 이에야스를 먼저 국왕으로 칭한 국서를 보내는 것이 명조에 거스르는 것이 된다고 하였다. 그는 조선이 일본 측이 먼저 일본국왕호를 자칭한 국서를 내놓기를 바라고 있다고 서술하였다.³⁷⁾ 그런데 손문옥의 발언에서 조금 앞부분을 보면, 일본이 일본국왕호를 칭할 수 있는 근거를 히데요시의 책봉례에서 찾고 있다. 조선은 이미 직접 개입을 하지 않기로 한 명국의 위용을 계속해서 빌려서 대일협상에 나서고 있었다.³⁸⁾ 그러므로 조선이 히데요시를 거론하면서 대일협상을 강조한 이유는, ‘천조에 거스른 히데요시의 예’를 따르지 말고 천조에 순응함을 조선에 보이려는 압박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이후 일본의 국서를 본 선조는 日本國王源家康 명의로 된 통서에 대해 불신의 뜻을 보여 위서일 가능성을 제기하였으나, 수교를 거부할 생각까지는 없음을 드러내었다.³⁹⁾ 따라서 공식적으로 이에야스가 일본국왕호를 칭하는 것은 조선에게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었다.

그럼에도 조선은 여전히 국내에서는 일본의 지도자를 관백으로 칭하였다. 1622년(광해군 14) 일본승 겐포[玄方, 1588~1661]가 조선에 방문하였는데, 해당 기사에서 사론에서 관백을 다시 언급한다.

처음에 히데요시가 죽자 그 아들 히데요리가 대신해서 섰는데, 그 신하 이에야스가 탈위하고 히데요리와 크게 싸워 그를 이기고 이욕고 관백이 되었다. 관백은 대장군이며, 국왕이 아니다.⁴⁰⁾

34) 姜杭, 『看羊錄』 賊中封疏 ‘倭國八道六十六州圖’, “自關東將軍源頼朝以後, 政委關白, 祭則天皇.”

35) 『宣祖實錄』卷199, 39年(1606) 5月 12日.

36) 『宣祖實錄』卷200, 39年(1606) 6月 26日, “且家康書一件, 尤不可無也. 昔年天朝封秀吉爲日本國王, 此誠爾國莫大之慶, 而蔑待冊使, 再動軍兵, 日本罪不容於天地. 今者家康雖反秀吉所爲, 我國何敢逆天朝, 而擅書國王之號乎? 此家康書, 不可無一也.”

37) 민덕기, 『전근대 동아시아 세계의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7, 213쪽.

38) 민덕기, 주 37)의 책, 156~166쪽을 참조.

39) 『宣祖實錄』卷206, 39年(1606) 12月 24日.

여기서 사론이 관백을 설명할 때, 관백이 왕이 아니라 사실은 장군이라는 사실을 강조하였다. 또한 『선조수정실록』에도 국사는 히데요시가 주관하는데, 그를 대장군이라 부르고 왕이라 부르지 않는다는 정보가 추가되어 있다.⁴¹⁾ 이 시기에도 조선은 왜정자문(1617) 내에서 히데타다를 지칭할 때 ‘日本國王源秀忠’이라는 명칭을 사용하며,⁴²⁾ 다음 막부 쇼군인 이에미츠의 글에 대해서도 ‘日本國王源家光’의 서한이 도착했다고 기록하였다.⁴³⁾ 하지만 광해군 9년(1617) 왜정자문의 서문에서 조선 측 사관은 관백의 글이라 적었다. 이러한 묘사는 계속되는데, 강홍중의 『동사록』에도 日本國王源家光의 서계가 기록되어 있으나, 강홍중은 이를 관백서계라 칭하였다.⁴⁴⁾ 조선 내부적으로는 이미 일본국왕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고, 관백이라는 표현이 그 자리를 완전히 대체한 것이다.

이러한 조선의 입장은 일본이 공식적으로 일본국왕 대신 대군호를 사용하면서 확실하게 정리되었다. 조선이 올린 다음 왜정자문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신들이 살펴보건대 島倭가 정성껏 통신한 게 지금 50여 년이 되었는데, 한결같이 效順하고 잘못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무인년(1638) 이후부터 다른 사단을 발생시키는 게 해마다 늘어, 약조 외의 요소가 한둘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응해서 따르지 아니하면 곧 성내고 원한함을 크게 더합니다. 무릇 왕복하는 문서 중에 본국이 주는 물건과 종전부터 예를 따라 사용하던 글자도 갑자기 모두 고쳐 냈습니다. 관백(關伯)은 원래 일본국왕이라 칭했는데 이번에 대군호로 고쳤고, 그 내용으로 관의 왜인들이 또 역관에게 밀서를 가져와 보여주었는데 말이 심히 패역스러움이 구절마다 더하는 게 이미 극히 해괴하다 할 만합니다.⁴⁵⁾

이 왜정자문은 효종 1년(1650)에 보낸 것으로, 당시 조선은 정묘화약(1627)에 이어 정축약조(1637)로 성지 수축을 금지당한 상태였다.⁴⁶⁾ 그 이전인 인조 27년(1649)년 1월 조선은 성지 수축 및 군비 수선을 위해 칙사에게 청 조정의 승인을 요청한 적이 있었다. 같은 해 2월에 差倭 藤智繩(?~?)이 조선에 나오자, 조선은 사은사를 보내 성지 수축 및 군비 확장을 병부에 건의하였다.⁴⁷⁾ 결과적으로는 청의 강경한 반대 의견에 부딪혀 조선의 성지 수축은 실패했지만, 이 왜정자문의 핵심은 일본의 위협을 과장하여 묘사하는 것이었다.

해당 자문에서, 조선은 일본의 의례 개정을 비판하였으며, 그 중 하나로 관백의 명칭 문제를 거론하였다. 조선은 관백이 본래 일본국왕을 칭했다고 하였으나, 이번에 와서 대군호로 갑자기 고쳐 냈다고 서술하였다. 하지만 에도 막부 쇼군의 대군호 문제는 익히 알려진 대로 1634년 야나가와 잇켄[柳川一件]으로 일본 내에서 일단락된 사안이었으며, 조선 역시 병자통신사(1636)를 파견할 때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모두 수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결과 조선은

40) 『光海君日記』卷173, 14年(1622) 1月 22日, “初秀吉既死, 其子秀賴代立, 其臣家康篡位, 與秀賴大戰克之, 遂爲關白. 關白乃大將軍, 非國王.”

41) 『宣祖修正實錄』卷25, 24年(1591) 3월.

42) 『光海君日記』卷115, 光海君 9年(1617) 5月 30日.

43) 『仁祖實錄』卷8, 3年(1625) 3月 23日; 7月 7日.

44) 姜弘重, 『東槎錄』, 仁祖 2年(1624) 12月 24日.

45) 『孝宗實錄』卷3, 1年(1650) 3月 8日, “臣等竊照, 島倭之納款通信, 已今五十餘年, 一向效順, 無有違誤, 自戊寅年以後, 惹生另樣事端, 歲增年滋, 約條外需索, 非止一二, 而無以應副, 則大加怨恨. 凡有往復文書中, 本國贈給物件, 從前循例使用之字, 輒必改下. 關伯素稱日本國王, 今改大君, 而館倭人等, 又以密書來示譯官, 語意殊甚悖逆, 節節層架, 已極可駭.”

46) 김근하, 「丁丑約條의 성격과 顯宗代 安秋元 사건」, 『조선시대사학보』78, 2016, 99~100쪽.

47) 김태훈, 「인조~효종대 왜정자문의 성격」, 『역사문화논총』8, 2014, 57~61쪽.

선위치서 요구를 더 이상 내세우지 않고, 공식적으로 통신하는 것을 승인한다는 의미에서 병자년 사신을 처음 통신사로 공인하였다.⁴⁸⁾ 그럼에도 조선은 일본의 패악스러움을 서술할 때 무단으로 의전의 변화가 이루어진 점을 강조하였다.

더 나아가, 해당 자문에서 조선은 일본의 관백이 일본국왕이나 대군을 칭하는 것이 일본의 자칭인 것처럼 서술하였다. 이는 당대 조선의 인식이 반영된 것으로, 조선은 관백이 실제로는 일본국왕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병자통신사(1636)의 종사관으로 일본에 건너갔던 黃屎(1604~1656)는 관백이 한낱 섭정직에 불과하며, 왕호는 어디까지나 (쓰시마 등이) 중간에 첨가한 것임을 지적하였다.⁴⁹⁾ 또 계미통신사(1643)의 부사였던 趙綱(1586~1669)은 관백이 山城主, 즉 천황의 대신 중 하나였다고 적었다. 관백은 비록 이름이 높으나 명위는 제신의 반열에 있고, 서계에서만 국왕이라는 표현을 쓰는 존재였는데 이웃 나라(조선)도 천조(명)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고 비판하였다.⁵⁰⁾ 조경은 한발 더 나아가, 미나모토노 요리토모로부터 源氏關白의 계보를 추적하여 가마쿠라·무로마치 막부의 쇼군들을 모두 관백으로 적었다. 그 과정에서 아시카가 요시마사[足利義政, r. 1449~1473]가 일본국왕을 자칭한 것을 특별히 적었는데,⁵¹⁾ 이는 조선 전기 조선에서 막부의 지도자를 일본국왕이라고 칭했던 사실조차 부정하는 서술이었다.

그 후 일본에서 大君을 자칭하자, 『조선왕조실록』에 대군 혹은 관백을 가리켜 日本國王이라고 칭하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조선은 관백 도쿠가와 가문이 안정적인 세습권력이라는 사실에는 관심을 기울였지만, 그들이 아무리 王事를 행한다 하더라도 人臣이자 종1위에 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⁵²⁾ 『조선왕조실록』에 日本國王의 명의를 다시 중요하게 떠오른 시기는 숙종 37년(1711)으로, 아라이 하쿠세키[新井白石, 1657~1725]가 주도한 국왕복호론이 공식 입장으로 조선에 알려졌을 때였다.

숙종은 5월 25일 동래부사의 글을 받고, 大君의 칭호를 쓴 지가 77년이나 되었는데 복고를 갑작스레 칭한 것에 놀랐다. 하지만 조정에서 열린 회의에서 일본의 개칭 자체에 대해서는 특별한 불만이 나타나지 않았다. 비국왕의 자문을 한 尹趾完(1635~1718)도, 예전에는 국서에 일본국왕이라 칭하다 저들이 대군으로 개칭하였기에 대군이라 써 준 것이며, 스스로 왕이라 함을 금할 이유가 없다는 견해를 내비쳤다.⁵³⁾ 그러나 아라이의 복호론은 1회성이었으며, 조선에서는 일본의 대표 지도자를 관백이라고만 칭하였다. 관백의 죽음에 대해 『해동제국기』와 마찬가지로 死를 붙여, 대우할 의지가 전혀 없음을 확인하는 모습도 그대로였다.

조선의 일본 관백론은 초창기 김성일이 주장했던 人臣의 논점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김성일이 보았던 히데요시는 실제로 人臣이자 간파쿠[関白]를 역임한 인물이었으나, 그 이후 관백들은 실제로는 쇼군들이었다. 그럼에도 조선인들은 기존의 日本國王을 관백으로 대체하면서 조선국왕과 대등한 급인 국왕이라는 인식을 지워버렸다. 결국 조선은 표면상으로는 일본과 적례를 맺으며 대등한 관계를 구축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관백이라는 명칭을 통해 일본의 지도자를 조선국왕보다 한 급수 낮은 위치로 간주하고 그 인상을 굳건히 해 나가는 데 주력하였다.

48) 이훈, 『조선의 통신사외교와 동아시아』, 경인문화사, 2018, 196~197쪽.

49) 黃屎, 『東槎錄』, 仁祖 14年(1636) 11月 18日.

50) 趙綱, 『龍洲遺稿』卷23 『東槎錄』, “關白設”.

51) 趙綱, 『龍洲遺稿』卷23 『東槎錄』, “題日本姓氏錄”.

52) 『肅宗實錄』卷13, 8年(1682) 11月 16日.

53) 『肅宗實錄』卷50, 37年(1711) 5月 27日.

IV. 맺음말

조선은 일본의 최고집정자를 임진전쟁 이후 줄곧 관백이라 칭하였다. 히데요시 이후 관백이라는 명칭이 상례화했음은 기존 연구들에서도 밝혔지만, 그 과정에서 일본국왕이라는 용어를 관백이 어떻게 대체해 나가는지를 명확히 짚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히데요시 이래 관백호가 조선에 정착해 나가는 과정과 그 의미를 명확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임진전쟁 중에는 조일관계 중 관백이 일본의 實職으로 부각되었는데, 경인통신사로 건너갔던 김성일은 관백을 人臣으로 보아 日本國王이 아니라고 강조하였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기존의 日本國王인 막부의 쇼군들과 관백 히데요시가 동일선상에서 받아들여졌다. 또한 전쟁 중 황정옥·황혁 등은 關白殿下라는 호칭을 사용하여 공초까지 받았는데, 이들 역시 關白은 사실 일본국왕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다. 이렇듯 조선 조정에서는 관백을 일본국왕이라는 기존 이미지에서 분리하여, 관백의 격을 人臣으로 떨어뜨리고자 하였다. 그러나 조선 내에서 관백과 일본국왕이 등치되는 사례도 적잖이 등장하였다. 또한 협상 과정에서 히데요시는 실제로 일본국왕으로 책봉을 받았고, 정응태 무고사건을 계기로 조선 역시 관백이 곧 일본국왕임을 시인할 수밖에 없었다.

세키가하라 전투(1600) 이후 일본에서는 이에야스가 실권을 장악해 나가기 시작하였다. 이때 조선은 이에야스가 새로이 관백이 되었다는 식의 정보가 유통되었고, 『간양록』 등의 정보에서도 일본국왕의 존재는 지워졌다. 그럼에도 조선은 1607년 회담검쇄환사에서 일본이 먼저 일본국왕호를 칭하기를 강조하였는데, 이는 막부의 쇼군이 실제로 일본국왕임을 인정한다기보다는 이에야스가 히데요시처럼 행동하지 않을 것을 상징하는 표현에 가까웠다. 실제로 그 이후 회담검쇄환사나 통신사 기록에서는 일본국왕은 어디까지나 일본 측의 자칭이며, 조선에서는 관백은 일본국왕이 아니라는 정보를 재생산하였다. 그 결과 조선이 작성한 왜정자문에서도 일본국왕과 대군은 모두 일본의 자칭으로 등장하였으며, 훗날 일본의 국왕복호에 대해서도 그들의 사정일 뿐 조선이 관여하는 문제는 아니라는 입장을 내세웠다.

결국 조선에서는 일본국왕이라는 호칭을 완전히 삭제하고, 그 자리를 人臣인 관백이 대체하고 말았다. 국서에 드러나는 모습에서는 이른바 대군외교, 즉 조선과 일본이 합의 가능한 표현을 만들어 각자의 질서를 인정하였다는 이해가 일반적이다.⁵⁴⁾ 하지만 이는 국서에서 드러나는 표면적인 문제일 뿐, 조선에서는 일본의 대군호 사용 자체에 큰 관심이 없었다. 오히려 조선은 관백이라는 호칭을 통해 일본의 지도자를 격하시켜 대우하였다. 조선 입장에서는 관백이 실제로 일본에서 간파쿠라 불리는가조차도 그리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다. 이는 어디까지나 관백호가 조선 내부에서만 통용되는 새로운 비칭으로 관례화했기 때문이다.

54) 檀上寛, 『天下と天朝の中国史』, 東京: 岩波新書, 2016, 250~251頁.

참고문헌

『朝鮮王朝實錄』

姜沆, 『看羊錄』

姜弘重, 『東槎錄』

金誠一, 『鶴峯集』

申叔舟, 『海東諸國紀』

惟 政, 『松雲大師奮忠紓難錄』

趙 綱, 『龍洲遺稿』

黃 屎, 『東槎錄』

北島万次 編, 『豊臣秀吉朝鮮侵略関係史料集成』 1~3, 東京: 平凡社, 2017. (日)

김근하, 「丁丑約條의 성격과 顯宗代 安秋元 사건」, 『조선시대사학보』78, 2016.

김문식, 『조선후기 지식인의 대외인식』, 새문사, 2009.

김태훈, 「인조~효종대 왜정자문의 성격」, 『역사문화논총』8, 2014.

三宅英利 著, 손승철 역, 『근세한일관계사연구』, 이론과실천, 1991.

(원저는 三宅英利, 『近世日朝關係史の研究』, 文獻出版, 1986).

민덕기, 『전근대 동아시아 세계의 한·일관계』, 경인문화사, 2007.

_____, 「도쿠가와 이에야스의 1606년 조선에 보낸 ‘국서’에 대한 위조설 검토: 요네타니設에 대한 비판을 중심으로」, 『한일관계사연구』52, 2015.

박수철, 『오다·도요토미 정권의 사사 지배와 천황』,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2.

孫承喆, 『近世朝鮮의 韓日關係研究』, 國學資料院, 1999.

이 훈, 『조선의 통신사외교와 동아시아』, 경인문화사, 2019.

임현채, 「壬辰倭亂期 조선과 일본의 豊臣氏 활용과 그 인식」, 『한일관계사연구』71, 2021.

조인희, 「도요토미 히데요시(豊臣秀吉)의 ‘정명(征明)’에 대한 고찰」, 『한일관계사연구』75, 2022.

하우봉, 『조선시대 한국인의 일본인식』, 해안, 2006.

허지은, 「丁應泰의 ‘조선무고사건’을 통해 본 조·명관계」, 『사학연구』76, 2004.

檀上寛, 『天下と天朝の中国史』, 東京: 岩波新書, 2016.

【토론문】

임진전쟁 전후 조선의 關白과 日本國王 토론문

조인희(한국국학진흥원)

본고는 임진전쟁 전후 조선의 관백과 일본국왕 인식에 대해 다룬 논고로서, 기존 한일관계 연구에서 비교적 연구가 덜 이루어진 조선의 일본 인식에 대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임진왜란(이하 임진전쟁)은 조선의 입장에서 보면 건국 이래 미증유의 위기였으나, 전쟁을 통해 동아시아 3국이 서로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되는 계기를 제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임진전쟁 전후 시기 조선의 관백과 일본국왕 인식의 변화 과정을 추적한 본 연구는 조선 시대 한일관계 연구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와 같은 점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1) 제목과 내용의 간극

본고의 제목은 임진전쟁 전후 조선의 關白과 日本國王인데, 실제 다루는 시기는 임진전쟁 이전부터 18세기 초에 이르고 있습니다. 본고에서 언급된 야나가와 잇켄이나 아라이 하쿠세키의 복호 문제 등과 관련해서는 후대의 역사적 배경을 전제로 설명되어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예컨대 야나가와 잇켄 이후 세 차례 회담검쇄환사 파견에서 통신사 파견으로 바뀐 과정은 명청 교체 및 병자호란 발발에 대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야만 하고, 아라이 하쿠세키의 문제는 남명의 멸망 및 동아시아 무역의 변화 등을 전제해야만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문제의식과 논점을 보다 분명하기 위해서는, 2장의 내용을 중심으로 임진전쟁 전후로 시대를 좁히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울러 본고에서 언급된 인물 혹은 사건이 과연 그 시대의 보편적인 대일본인식을 대표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조선의 일본 인식”이라는 측면에서 논지를 전개하고자 한다면, 해당 인물이 과연 그 시대의 대외인식 및 지성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성일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이 요건에 부합되나, 황정욱의 사례의 경우 삼성 추국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의 진술이므로, 이를 바탕으로 당대의 보편적 관백 인식을 논하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근래에 발간된 방기철 선생님의 논문(방기철, 「조선 국왕 宣祖의 일본인식」, 『한일관계사연구』, 79, 2023)처럼 인물을 특정하고 시간대를 좁히는 것이 논문 구성에 유리하지 않을까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여쭙고자 합니다.

(2) 조선의 원씨(源氏), 평씨(平氏) 인식에 대한 서술이 필요

임진전쟁 전후시기 조선의 관백 인식에 대해 논하자면 조선의 원씨, 평씨 인식에 대한 논의가 함께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원씨와 평씨의 문제는 일본사의 전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하며, 당대 일본에 대한 조선의 이해를 전제하고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기 위해서도 꼭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ex) 『서애집』 권3 「陳倭情奏文」(1591) 근래 우리나라 사람으로 바다에서 돌아온 사람의 말에 의하면 “일본에 가서 들으니, 그 나라의 예전 괴수[舊] 원씨(源氏)가 있었는데 수십 년 전에 망했고, 그후 여러 괴수들이 서로 다투다가 근래 다시 평수길(平秀吉)이란 자가 빼앗아 대신하고 스스로 관백(關白)이라 부르는데, 자못 전쟁을 일삼아 여러 괴수 중에 으뜸이 되었다.”

(3) 조선이 일본국왕과 관백을 분리하려고 하였다는 서술에 대한 의견

2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 조선이 일본국왕과 관백을 분리하려 하였다는 서술이 등장합니다.

조선의 입장에서 볼 때 일본국왕과 관백의 문제가 중요한 것은 그것이 적례(敵禮)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경인통신사 때 김성일과 허성의 영외배와 정하배 논쟁도 이런 시각에서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3페이지의 “그 결과 조선에서 관백은 일본국왕과 동일한 인물을 지칭하면서, 동시에 실제로는 일본국왕이 아닌 존재여야 한다는 인식 체계가 형성되었다.” 같은 서술은, 조선의 사대교린 외교에 대한 기본전제가 제시되지 않은 채 서술된 내용이기때문에 다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부연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4) 인식과 외교 의례를 절충해나가는 과정을 어떤 방식으로 이해해야 하는가

3장 마지막에 보면(9페이지) “그럼에도 조선인들은 기존의 日本國王을 관백으로 대체하면서 조선국왕과 대등한 급인 국왕이라는 인식을 지워버렸다. 결국 조선은 표면상으로는 일본과 적례를 맺으며 대등한 관계를 구축했지만, 내부적으로는 관백이라는 명칭을 통해 일본의 지도자를 조선국왕보다 한 급수 낮은 위치로 간주하고 그 인상을 굳건히 해 나가는 데 주력하였다.”라는 서술이 있는데 의미를 이해하기가 다소 어렵습니다.

이 문장이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당대 조선인들의 관백 인식 변화 과정과 제도적 차원에서의 외교 의례 용어 변화 과정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본고에 적시되지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판단됩니다. 당대 조선인들의 관백 인식이 그대로 외교 정책에 반영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며, 각 시기별, 사안별로 정치적, 역사적 맥락이 고려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교 의례의 변화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17세기 조선과 일본의 대외교섭은 변화하는 국제정세 속에서 양자가 적례를 찾아가며 의례를 절충해나가는 과정이며, 인식만으로 실제 조일 양자의 대외교섭을 논하는 것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대한 부연 설명을 요청드립니다.

기타 -

전체 - 고유명사의 한글-한문 병기가 필요

- p.1 - 현재는 (통신사를) 선린우호에 의해 입각한 관계라 보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 최근에는 다른 시각으로 보는 연구도 많음. 연구사 제시 필요
- p.1 - 셋칸가(攝關家) - 한문 제시 필요. 각주로 이치조, 니조, 구조, 고노에, 다카쓰카사라는 점을 밝혀주면 좋을 듯.
- p.2 히데쓰구 한자 빠짐(r). 히데쓰구 사건은 1595년.
- P.3 히데요시는 쇼군에 오르지 못한 것인가, 앓은 것인가의 문제는 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음. 서술에 신중할 필요
- P.5 종전 협상 -> 보통 강화 협상이라고 더 많이 씀
- P.5 관백의 책봉 논의는 선조 27년부터 『조선왕조실록』에 종종 등장
조선왕조실록 --> 선조실록. 실제 논의는 1593년부터 있었음. 송응창의 『경략복국요편』 등을 참조할 것.